

삼성·현대차와 함께 카자흐 대통령 만난 文 "모든 지원할 것" 협력 방안을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국빈 방한 중인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한국-카자흐스탄 주요 경제인 간담회를 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약 55분간 진행된 간담회에 한국 측에서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 남영숙 경제보좌관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정영인 두산중공업 사장, 민병기 롯데제과 대표이사, 주식보 포스코인터 사장,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 김규영 ㈜효성 대표이사, 고동현 동일토건 대표이사, 유정열 코트라 사장 등이 참석했다.

해당 기업들은 카자흐스탄 측에서 참석을 희망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카자흐스탄 측에서는 무흐타르 틀레우베르디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과 로만 스크라르 경제부총리, 티무르 솔레이메노프 대통령실 부실장 등 정부 인사와 삼록-카즈나(국부펀드), 카자호텔레콤(통신), 카스피 그룹(금융), 미네랄프로덕트(자원) 등 4개 분야 기업의 대표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1992년 수교 이후 양국의 교역 규모가 1000만불에서 2019년 40억 불을 넘어섰고, 한국의 카자흐스탄 투자는 210만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늘어났으며 '한국의 뉴딜 정책과 경제 발전 경험, 기술력을 함께 나눈다면 카자흐스탄의 새로운 도약에 주동력을 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아시아 최초의 민간 합작 투자 프로젝트인 '알마티 순환도로 건설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알마티 자동차 공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했다"며 "한국의 PCR진단 기업이 카자흐스탄에 진출해 코로나 대응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2019년 카자흐스탄 방문을 계기로 합의한 중기협력 프로그램 '프레스티지 윈드'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는 동시에 이번 토카예프 대통령의 방한으로 합의된 빅데이터, 5G, 바이오헬스, 우주개발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해나간다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우리 카자흐스탄의 최대 무역 파트너 중 하나"라며 "우리는 경제에 더

지활화를 하고 있고, 이노베이션 분야, 디지털화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자 한다. 인프라가 있고, 투자 또 정부의 의향이 강하며, 많은 수단들도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양국 기업들은 민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과 카자흐스탄 투자 진출 관련 현안 및 건의 사항 등을 논의했다. 현대차, 삼성전자, 두산 등은 협력 규모·분야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 애로 해소 등을 요청했다.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은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 자동차 수출 확대를 위한 핵심 생산기지라며,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반조립제품(CKD) 공장을 기반으로 주변국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은 2008년 설립한 현지 판매법인을 통해 스마트폰, TV 등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현지 사회공헌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영인 두산중공업 사장은 알마티 발전소 현대화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카자흐스탄과 좋은 파트너가 되기를 바란다며, 민병기 롯데제과 대표이사는 알마티 시내에 공장을 가동 중인데, 외곽 이전에 따른 인프라를 갖춘 공업단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카자흐스탄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셀트리온, 효성 등 아직 카자흐스탄과의 협력이 크지 않은 기업들도 카자흐스탄 투자에 큰 관심과 의지를 보였다.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은 양국 간 주요 협력 분야로 바이오산업은 필수적이라고 했고, 김규영 ㈜효성 대표이사는 카자흐스탄과의 변압기 분야 협력에 대해 기대감을 표시했다고 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경제인 간담회가 매우 만족스럽다"며 "한국과 관련된 여러 프로젝트 실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속담에 새의 힘은 날개에 있고, 사람의 힘은 우정에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번 국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우정이 더욱 돈독해지기 바란다"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광수기자

[덕암칼럼]세력이 권력이 되어서는 안된다

공약 남발의 춘추전국시대에 돌입했다.

당선시켜주면 주 4일 근무에 월급도 많이 주고 어떤 후보는 아파트도 공짜나 다른없는 돈으로 평생살 수 있도록 해주며, 또 어떤 후보는 신도시 신공원에 대한민국은 하루 아침에 버락옵의 나라로 변해갈 기대가 앞선다.

그렇다 치자. 누구 돈이며 그 돈은 어디서 하며 다 늘면 일은 누가할 것인가. 공약대로 다 될것 같으면 지금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후보들이 큰소리 치는 일들을 그동안 못한 게 아니라 안한 것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무능했거나 직무유기인 것이고 할 수 없는 일을 후보들이 빈약속, 공약을 남발한다면 이는 용상의 자리를 두고 백성을 기반하는 언행이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필자는 정당 정치를 반대한다. 하마 평부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양당 후보에 대한 끊임없는 여론조사는 물론 프레임은 정해두고 만들어가는 분위기가 신성한 민주주의 선거에 초를 치는 역할을 한다.

물론 후보들의 난립은 막아야겠지만 유권자의 판단을 인위로 설정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은 선거의 본질에 역행하는 처사라 볼 수 있다. 양당의 이유로 사람은 본능에 따라 반대 면을 높고 싶고 말 하면 좋았 세우고 싶었다.

베고플 때 친일프레임으로 군사독재의 허물까지 적잖이 섞어 소위 민주화란 대의명분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던 시절, "갈아보자 못살겠다"며 구호를 외치던 일들이 광복 이후 지금까지 몇 차례나 없지않아 되풀이 된 것 같다.

필자 또한 민중가요를 부르며 탄광 노동자들과 석탄산업합리화에 앞장서 나뉘다가 곤욕을 치른 전적이 있다. 시기적으로 386세대의 중심에 있었던 탓에 민주화 열풍의 뜨거운 온도를 온몸으로 체험했던 시절이었다.

역대 대통령들이 하나 둘씩 취임식을 하고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촛불혁명으로 다시 태어난 문재인 정부는 온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이었다.

상상 그 이상의 희망과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은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이후 2022년 5월 9일 인기 만요시점을 264일을 넘겨주고 문재인 정부의 발자취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미래를 알려면 현재를 알아야 하고 현재를 알려면 과거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문 정부의 공약을 줄이자면 일자리를 책임지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강하고 평화로운 강국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청년의 꿈을 지켜주고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없는 나라,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소득이 늘어나 한탄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활기찬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식 약속했다.

특히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얼마나 지켜졌을까. 이미 말 안 해도 지각 있는 국민들은 다 알고 언론만 입 다물었다면 틀린 말일까.

배부른 사자 대신 배고픈 늑대를 밀림의 왕에 앉혔더니 고라니나 돼지는 물론 토끼나 쥐새끼까지 죄다 잡아먹는 경우와 뭐가 다를까. 입맛을 가리지 않고 중앙정부부터 지방자치단체

까지 씹쓸이 한 의석수를 기반으로 각종 부동산 부패와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았다.

당초 국민이 주인인 정부로서 소통으로 통하는 광화문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은 소통 대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실질적 해결점을 찾지 못한 신권인들이 소리만 요란한 대통령이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지만 빈부격차는 갈수록 커졌고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는 비정규직과 시간제 근로자까지 자리를 찾지 못하는 불안정 시대를 맞이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를 추진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에 대한 4년 전 공약은 코로나19로 인해 굳이 지키지 않아도 실적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고 성 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평사회는 공군 여중사의 극단적 선택에 공군 참모총장까지 옷을 벗는 조강수를 두었지만 보란 듯 해군 여중사까지 같은 맥락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아무리 그래봤자' 라는 의미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 그리고 문 정부는 고르게 잘 사는 균형발전으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겠다고 4년 전 큰소리 쳤다.

과연 얼마나 이루어졌을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전정부위로 뛰는 동안 농어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초도화 된 것이나 진배없었다.

뭐하나 제대로 이뤄진 게 없는 동안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해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으로 남북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를 펼치겠다고 했다

그렇까. 한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판문점에서 화려한 미소로 담화를 할때만 해도 전세계의 이목은 문재인 대통령을 주목했다.

불과 얼마되지 않아 개성의 남북공동 연락사무소가 파괴되고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훈련에도 불만을 표시하는 등 앞서 공언한 국방과 외교의 현주소는 어떠한 진전도 없이 북미간의 눈치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결과의 이면에는 해당 분야를 이끄는 장관이나 관련 종사자들의 안일하고 비전취적인 사고가 초래한 재앙이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올바른 인사지 해당분야의 만능이 될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국정을 잘 하라고 국무위원의 임명권을 준 것임에도 야당의 정문회를 보이콧 하고 무리한 인사를 강행한 것이 점차 그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입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이 보내야 할 고독과 고뇌·번민이 시간이 하루씩 다가오고 있다.

이 모든 게 패거리 정당정치가 낳은 부산물이다. 세력이 권력이 되면 앞으로 절대 바뀔 리 없는 정승자리 나눠먹기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고 리더의 자질이 부족하면 조직이 부패하며 종래에는 국민이 그 피해자가 되기 때문이다.

국민은 분위가 잡는 언론의 요란한 북소리보다 은은히 들려오는 대금 연주 선율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덕암/김근식

이재명, 이낙연·정세균에 '칭찬 릴레이' 나선 까닭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내 경쟁주자들에 대한 '칭찬 릴레이'에 나섰다. 최근까지 '돌아온 사이드'를 자처하며 백제 발언 논란과 읍유준 전 전력 등의 지적에 얼굴을 붉혀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네거티브 공방을 자제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경쟁주자들의 반(反)이재명 연대에 균열을 가해 추격의 동력을 미연에 제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은 최근 읍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에 대해

대표의 지지를 상응해 빌미를 제공했다. 이 지사와 가까운 한 민주당 의원은 "다른 캠프에서는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문제를 키우려고 하겠지만 우리가 지역적인 문제까지 다 받아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세 과시를 통한 1위 주자로서의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최근 2위 주자인 이 전 대표의 추격세가 주춤한 만큼 대세론 굳히기에 나섰다. 이 지사는 1,800여명 구성된 정책자문그룹인 '세상을 바꾸는 정



맹공하면서 검증의 칼을 버리고 있다. 그러나 이 지사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낙연 후보님의 공약인 ESG 4법은 경청해야 할 공약"이라고 치켜세웠다. 17일에는 친문세진계 의원들의 '기본소득 끝장토론' 요구에 환영의사를 밝힌 정 전 총리를 "존경하는 정 후보님은 우리 당의 '구원투수'"라고 평가했다.

이 지사가 '로키(low-key)' 대응에 나선 것은 즉각적인 맞대응이 오히려 '반이재명' 선전을 공고하게 만든다는 판단에서다. 이 지사는 지난달 5일 TV토론에서 '여배우 스캔들'에 대한 질문을 받아,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라고 대응하면서 "불안정한 후보"라는 우려와 함께 2위 주자인 이 전

책 2022'를 공개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조병래 전 환경부 장관 등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의원 40명도 지지 선언을 했다.

이 지사의 의도대로 경쟁주자 끌어안기 전략이 효과를 거두지는 불분명하다. 이 전 대표 측은 황씨 내정 문제를 '불공정 이슈'와 연계해 경기도의 다른 공직 인사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고, 국민의힘 대선주자들도 참전하고 있다. 논란이 확대될 경우 이 지사가 또다시 전략을 수정해 강경모드로 돌아설 수도 있다.

최만식기자

문재인 대통령, 故 홍범도 장군 훈장 추서식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故 홍범도 장군 건국장 대한민국장 훈장 추서식을 수행했다. 이 자리에는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날 대한민국 독립전쟁의 영웅이자 겨레의 근지인 홍범도 장군을 마침내 조국에 모셨고,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훈장을 추서하게 되었다"면서 "장군께 드리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은 대한민국의 영광인 동시에, 장군의 정신을 지키겠다는 굳은 다짐"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62년 정부는 홍범도 장군께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수여했지만, 장군의 후반기 생애는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카자흐스탄은 물론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자부심이자 정신적 기둥이었던 장군의 전 생애가 전설 속에서 걸어나와 위대한 역사적 사실로 우뚝 서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의 우정은 이처럼 단순한 외교 관계가 아니다"며, "2019년 계봉우, 황운정 지사에 이어 장군을 고국에 모시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열망에 깊은 공감과 존중을 표명해주시 토키아프 대통령과 장군을 가장 사랑했던 고려인 동료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족 영웅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조국에 봉환한 것은 카자흐스탄 한민들에 대한 진정한 존경과 관심의 표시"라며 "한국을 처음 국민 방문하는 가운데 이루어져 매우 뜻깊고 양국 모두에게 중요하고 특별한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라 밝혔다.

이어, "많은 한국인들이 카자흐스탄에 강제이주 하였는데, 카자흐스탄에는 모든 민족이 자신의 뿌리를 잃지 않고 언어와 종교를 유지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마련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우정의 정신으로 우리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훈장은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우원식 이사장이 수여 받았다.

이번 추가 서훈은 홍범도 장군의 기증 공적과 별개로 홍범도 장군의 공적을 추가로 인정받아 59년 만에 결정되었다. 이날 홍범도 장군에게 수여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은 건국훈장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최고 훈장을 수여하게 된 배경은 일생을 독립운동에 바친 공적 외에도 전 국민에게 독립 정신을 일깨워 국민 통합과 애국심 함양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최재은기자

10억 송이 가을꽃 만개할 장성 황룡강 '기대감 솔솔'



오홍관기자

전주 3040세대 815명 이재명 경선 후보 지지 선언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3040세대들이 역량부약, 대동세상으로 동학농민혁명정신을 계승하는 이재명 경선 후보를 지지한다



일제로부터 국권을 회복한 8월15일을 맞이하여 전주에서 815명의 청년들이 “동학농민혁명정신을 계승하고 불공정과 불평등으로부터의 해방을 염원”하며 그 실현을 위하여 공정사회, 공정국가 정책을 추구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3040세대 815명은 전주에서 ‘직장인, 주부 등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공정사회 실현과 양극화해소, 민주사회 대개혁의 길을 만들고자 함께 뜻을 모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식을 개최하였다’ 라고 밝히면서 이재명 후보의 ‘대동세상’과 ‘역강부약(抑強扶弱,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움)의 정신’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뜻을 같이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행사참가자들은 동학농민혁명군 무명지도자가 안치된 전주 녹두관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김개남 장군이 처형된 초록바위로 이동해 결연한 의지를 담아 지지선언문을 낭독하였다.

이번 선언은 ‘더불어 함께 잘 살자(대동세상 구현)’는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시대가 흐른 2021년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청년 주거빈곤, 청년 소득빈곤, 부동산문제, 불공정, 불평등으

로부터의 해방, 청년들의 정치진출 장벽으로 부터의 해방을 염원하는 선언식”으로써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과 기본소득, 청년기본대출 등을 적극 지지하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청년 석패율제 등을 포함한 청년들의 정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개혁적인 정책들도 제안하였다.

지지 선언문에는 “이재명 후보는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3040세대가 가지고 있는 사회개혁에 대한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실력있는 후보로서 동학농민혁명정신을 계승하고, 불공정과 양극화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유일한 인물” 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선언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들 815명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지향은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호남이기에 차별없이 지역균형발전에 앞장서고 대동세상을 만들어 같것임을 확인하며 호남에서 출발해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져간 동학농민혁명처럼 전국의 모든 3040세대들이 함께 지지선언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경선 후보 지지 선언문] 우리 3040세대는 권력교체와 사회제도개혁을 통해 한국사회가 민주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자라왔습니다. 김대중대통령의 국민정부와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 탄생을 지켜보았고, 문재인정부를 탄생시킨 촛불혁명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앞장서 노력하였습니다. 여전히 30대와 40대의 40% 이상이 집권여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민주화운동 선배님들의 헌신과 희생을 지지하며 한국사회의 진보적 가치와 개혁을 존중하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최근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짊어져

야 할 경제적, 사회적 무게는 버틸 수 있는 하중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가격의 급등은 자산불평등을 만들어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까지 양산했고 코로나19 팬데믹시대는 거대 자본중심으로 경제가 재편되고 있는 양상이며 ‘각자도생’으로 몰린 청년들은 가상화폐등 위험자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의 증가, 청년실업문제 등 3040세대가 겪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만든 YOLO, 우리는 live once가 아니라 live well을 원하고 있습니다. 각자도생이 아니라 함께공생을 원합니다.

우리 3040세대는 불공정과 사회적 불평등이 개선되는 사회를 원합니다. 더 유능하고 공정한 국가지도자를 통해 한국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합니다.

이에 우리는 일제로부터 국권을 회복한 8월15일, 815명이 한뜻을 모아 공정사회실현과 양극화해소, 민주사회대개혁의 길을 만드는 데 동참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의지와 뜻을 더 널리 알리고자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역사가 남아있는 녹두관에서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녹두관은 김개남 장군이 처형되신 초록바위 근치산에 위치해 있으며 무명동학농민지도자가 안치된 곳입니다.

우리 815명은 1894년 ‘함께 잘살자는 대동세상 구현’을 위해 앞장섰던 동학농민군의 합성을 가슴속에 기억하며 청년주거빈곤, 청년소득빈곤, 부동산문제, 불공정, 불평등으로부터의 해방, 청년들의 정치진출 장벽으로부터의 해방을 염원합니다.

그 실현을 위하여 공정사회, 공정국가 정책을 추구하는 이재명 후보에 대

한 지지를 선언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과 기본소득, 청년기본대출 공약을 적극 지지하며 더 많은 3040세대의 정치진출과 정치개혁을 위하여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개선 또는 폐지와 청년석패율제를 제안합니다.

우리는 이재명후보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원칙과 강한 추진력으로 실천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상적인 가치와 지향에만 몰입하지 않고 실제 성과를 바탕으로 한 행동적 실천이야말로 한국사회가 어려운 상황을 정면돌파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는 우리 3040세대가 가지고 있는 사회개혁에 대한 요구를 실현 할 수 있는 가장 실력있는 후보자로서 동학농민혁명정신을 계승하고 불공정과 양극화의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지난 8월 1일 전주 방문시 이재명후보는 역량부약과 대동세상이라는 정치지향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같다 하였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은 호남이며 이재명후보 정신의 본향은 분방 호남입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차별없이 지역균형발전에 앞장서고 억울함이 없이 다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만들 것임을 확신합니다.

오늘 전주에서의 지지선언에 이어서 전국의 모든 3040세대들이 사회대개혁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이재명후보 지지운동에 들불처럼 일어나 앞장서기를 호소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합니다.

이재명 경선 후보를 지지하는 3040세대 815명 일동

최광수/기자

홍범도장군의 귀환, 서울공항에 올려 퍼진 '올드 랭사인'



공군 전투기 6대의 엄호 비행을 받으며 서울공항에 도착, 대한민국 공군 운용 전투기종 모두 투입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국가처럼 불리던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사인’이 15일 서울공항에 울려 퍼졌다. 이 노래는 1921년 연해주 이주 후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홍범도 장군의 넋을 기리기 위해 준비되었다.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은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했을 당시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협조를 요청하면서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이후 작년 3·1절에 유해 봉환이 결정된 뒤 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을 기해 홍범도 장군을 모시려 노력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봉환이 연기되다가 이번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결실을 맺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을 위해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우원식 국회의원, 배우 조진웅을 카자흐스탄 특사단에 파견했습니다. 특사단은 크즐오르다에 위치한

홍범도 장군 묘역에서 카자흐스탄 정부 관계자 및 고려인협회와 추모 및 제례로 유해를 정중히 모시고 군 특별수송기(KC-330)로 봉송했다.

특별수송기는 카자흐스탄 상공을 3회 순회한 후 대한민국으로 향했다. 수송기는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진입한 후, 공군 전투기 6대의 엄호 비행을 받으며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이는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하는 전투기종(F-15K, F-4E, F-35A, F-5F, KF-16D, FA-50)을 모두 투입한 것이다.

문 대통령 부부는 서울공항에 서훈 국가보훈장, 서육 국방부 장관, 유명민 비서실장과 함께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정중히 맞이했다. 봉환식에는 한국광복군으로 항일운동에 참여한 후 한국전쟁에도 참여하여 1952년 화랑무공훈장과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김영관 애국지사도 함께했다.

추모를 마친 뒤,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대전현충원으로 이동했다.

정부는 홍범도 장군의 넋을 기리기 위해 16일, 17일 이틀간 온·오프라인 국민추모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추모식은 코로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최만식/기자

도램마을 7,8단지 문제 주민의 입장에서 결단이 필요하다!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은 17일 논란이 되고 있는 도램마을 7,8단지 영구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 문제와 관련, 도램마을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코로나로 인한 수입감소 등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임대료 동결조치를 취해줄 것을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행복청이 지은 임대아파트의 지원대책은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시행령 제28

조에 따라 건설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파트가 세종시로 이관된 상태에서 임대료 인상 문제는 세종시장의 권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종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정’제 16조에도 행복아파트 특례가 있고 이 규정을 근거로 얼마든지 행복아파트에 대한 임대료 및 보증금 산정을 할 수 있다” 하면서 도램마을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어려운 경제

사정과 코로나로 인한 수입감소 등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임대료를 동결하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이준희 세종시장에게 건의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미 인천 도시공사, 부산 도시공사가 영구 임대 아파트의 임대료를 동결 조치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세종시는 도램마을 7,8단지 임대아파트 임대료 동결을 더 이상 머뭇거리 이유가 없다면서 이준희 시장이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

했다.

최 위원장은 “세종시의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 이중적으로 적용되는 현행의 모순적인 법제도와 세종시와 행복청 사이에 소관 떠넘기기 행태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법적인 보안을 위해 관련 기관은 협의를 거쳐 조치를 취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재은/기자

ZOO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길 천과 산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숲길. 영양국립자연휴양림, 영양국립자연휴양림, 영양국립자연휴양림

빛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영양국립자연휴양림, 영양국립자연휴양림, 영양국립자연휴양림

맛 산과 들의 향이 어우러진 반가의 레시피. 영양국립자연휴양림, 영양국립자연휴양림, 영양국립자연휴양림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정취. 영양국립자연휴양림, 영양국립자연휴양림, 영양국립자연휴양림

영양군 YEONGYANG-GUN

영양 들머리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김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해계곡, 본신계곡, 참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비전길
-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립자연휴양림,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부평소방서, 잠든 소방유물을 찾습니다

부평소방서는 2024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인 국립소방박물관에 전시할 소방유물 기증운동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유물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소방 관련 사진부터 문헌, 서적, 물품, 의복, 장비·차량, 작은 배지까지 크기와 종류에 상관없이 기증할 수 있으며 국립소방박물관이 건립되면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하고 시민에게도 전시할 예정이다.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 발급과 감사패 수여, 각종 중요 행사, 전시 개막식 초청 등 기증자 예우와 특권이 주어진다.

참여 방법은 소방유물자료관에서 '소방유물 기증운동'을 클릭 후 소방유물 기증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발송하면 된다.

김석민 안전문화팀장은 "소방 역사를 담은 소중한 유물이 많이 발굴돼 체계적 관리로 후손들에게 소방의 역사를 알릴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전순희/기자

서울시, 시민 '거리 모니터링단' 발굴한 보행불편사항 1만7천여건 정비 완료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476명 시민봉사 '거리 모니터링단'을 상반기 불편사항 발굴

서울시가 시민 참여 봉사단으로 운영 중인 '거리 모니터링단'을 통해 시민이 직접 불편사항을 신고하고 개선점을 건의한 1만 7천여 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누구나 걷기 편한 보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보도 시설물과 파손 신고,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불편요인에 대한 개선 방안을 건의하는 '거리 모니터링단'을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모니터링단은 불법 광고물, 소음 등 일상 속 다양한 불편사항도 신고해 생활 편의에도 기여하고 있다. 10대~60대 이상까지 다양한 연령의 시민 476명이 서울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시는 모니터링단이 올해 상반기(1~6월)에 발굴한 보행 불편사항 17,977건 중 98.7%(17,737건)에 대한 정비를 신속하게 마쳤다. 보도블록 파손, 물고임, 보행 장애물 적치,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등 통행을 불편하게 한 요인을 정비해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보도 파손 등 불편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체계적인 정비로 이어지면서 일상생활의 보행 불편사항을 개선하는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시는 '스마트 불편신고' 모바일 앱과 120다산콜센터를 통해서도 보행 불편사항을 신고 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 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통해서도 총 6,302건의 보행불편이 신고 됐다. 모니터링단과 모바일 앱을 통한 시민 신고 건수를 합산하면 총 24,279건에 달한다.

시는 적극적인 신고로 보행개선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8조에 의거, 반기별 누적 신고건수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포상금(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지급대상자는 10건~200건 이



상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 63명이다.

모니터링단이 올해 상반기에 신고한 건수 중 가장 많았던 것은 ▲가로정비(1,905건)(10.5%)였다. 이어 ▲보도블록(1,498건) ▲도로 시설물(398건) ▲공원녹지(302건) ▲도로 포장(252건) ▲치수방재(242건) ▲공사장 불편(13건) 순이었다.

시는 앞으로도 신속하게 시민 의견을 수렴해 보행 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동절기에는

한파로 인한 결빙·파손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 모니터링단의 신고를 적극 활용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이혜경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장애인과 교통약자 등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신고가 즉각적인 환경 개선과 정비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웅진군, 스마트폰 '관광 전자지도' 서비스 개시

웅진군 관광정보 검색 및 배표 예약까지 한번에



아니라 음식점, 숙박업소, 편의시설 등의 정보 및 주요 관광지에 대한 음성안내 기능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GPS를 연동하여 본인의 위치에서 가고 싶은 곳을 클릭하거나 지도 내에서 특정지점을 2초가량 누르면 내비게이션(카카오, T-Map)연계를 통해 편리하게 길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기능은 배표예매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안내서비스'로, 웅진군 내 영흥면을 제외한 모든 섬들을 배와 타고 방문해야 하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한국해운조합의 예약시스템에 연동을 통해 전자지도 내에서 배표예매까지 한 번에 완료할 수 있는 원스톱 안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군 관계자는 "별도 어플을 다운받을 필요 없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웅진 전자지도'를 검색하면 바로 접속할 수 있으며, 다양한 관광정보 제공을 위해 전자지도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가장 최신의 관광정보를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남/기자

부평구 청소년수련관, 일상 속 환경보호 실천 담은 '제로웨이스트' 영상 공모



재활용,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일상 생활속에서 가장 가깝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 활동을 뜻한다. 지난 2002년 미국에서 ZWIA(Zero Waste International Allinace · 국제 제로웨이스트 협회)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번 영상 공모전에는 부평구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일상 속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모습이나 소소한 일상 속 환경보호 활동을 담아 자유롭게 촬영하면 된다. 신청서와 영상을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프로그램 내용 및 참가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우수상으로 선정되면 부평구 청소년수련관장과 다양한 상품이 수여되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박건호 관장은 "영상 촬영을 통해 청소년이 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순희/기자

은평구, 건설현장에 '찾아가는 현장 선별검사소' 설치 운영



최근 코로나19 최고 대응 단계인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도 불구하고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최고치인 2,000명이 넘는 등 방역에

일까지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은 식사·휴식 등 공동활동 공간이 많아 집단감염 우려가 큰 곳이다. 특히 지난 6~8월에는 지역 내 건설현장 근로자와 외국인 일부가 확진되는 등 현장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검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했다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구는 '찾아가는 현장 선별검사소'를 오는 31일까지 설치·운영하여 건설현장 내 집단감염을 막고 지역사회로 퍼질 수 있는 코로나19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3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지역 내 모든 건설현장으로 9개소 2,800여명 규모다. 건설현장에서 희망하는 날짜에 맞춰 선별검사소 설치·운영하게 되며, 현장 근로자들은

검사 대기시간 없이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찾아가는 현장 선별 검사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집단 감염을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개별 감염이 사업장 내 집단감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휴가 중 다수가 모이는 곳은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증상이 없더라도 일상 복귀 전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13일 '은평구 집에서 머무르기 캠페인'을 통해 구민들에게 광복절 연휴 동안 이동과 여행을 자제하고, 여름철 휴가를 다녀온 분들은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 19 검사를 받기를 권장한 바 있다.

조상순/기자

미추홀구, 공공개방자원 통합플랫폼 공유누리 서비스 확대



인천 미추홀구는 18일 공공개방자원 통합플랫폼인 공유누리 서비스를 확대했다.

공유누리는 행정,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 물품 등 공공개방자원을 유희시간에 국민에게 개방해 위치기반 지도로 검색과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미추홀구는 주차장, 강의실, 물품 등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맞춰 방역분무기를 공유누리 서비스에 포함하는 등 서비스 목록을 확대했다.

공유누리 이용방법은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모바일앱 공유누리를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국민 이용 편의 증진과 공유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를 확대한다"며 "더 많은 공공개방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목록을 추가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유주/기자

동대문구, "귀로 읽는 책, 이제 쉽고 편리하게 들어요"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동대문구립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오디오북이 인기를 끌고 있다.

오디오북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책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접근성이 좋으며, 휴대도 간편하다. 이러한 장점으로 젊은 층은 물론 시력이 약해진 노년층에서도 선호도가 높고, 책을 읽기 쉽지 않은 시각장애인에게도 유용하다.

동대문구립도서관은 '오디언 도서관 앱'을 통해 현재 800여 종의 오디오북을 제공하고 있다. 최신 출시 작품을 비롯하여 베스트셀러와 소설, 시·에세이, 인문/사회/역사 등 분야별로 다양한 오디오북을 대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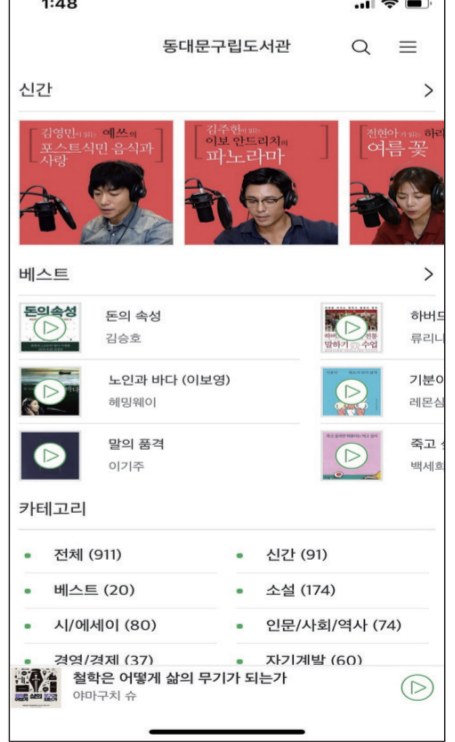
동대문구립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앱에서 오디오북 스트리밍 서비스를 대출기한과 대출권수의 제한 없이

원하는 만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스트리밍과 더불어 다운로드 재생도 가능하다. 오디언 도서관 앱에는 오디오북이 카테고리별로 분류되어 있어 취향에 맞는 작품을 선택하기 용이하며, 즐겨찾기, 반복 듣기 등 편리한 기능도 있어 이용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구는 앞으로 지식 취약계층을 위한 오디오북 자료도 정기적으로 늘려가는 한편,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인한 생활 변화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오디오북과 함께 전자책 등 다양한 서비스도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유태열 동대문구청장은 "지식격차를 해소하고,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오디오북 서비스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오디오북이 다양한 계층의 독서 욕구를 고취시켜 향후 다채로운 독서활동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계양구청청소년수련관 1박2일 가족캠프 '가족과 함께하는 집콕! 홈 캠핑' 참가자 모집 안내

인천광역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광순) 계양구청청소년수련관에서는 비대면 프로그램 1박2일 가족캠프『가족과 함께하는 집콕! 홈 캠핑』참가자를 다음 달 1일까지 모집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집콕! 홈 캠핑』은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집에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텐트 꾸미기, 무드등 만들기, 보드게임, 캠핑 요리와 간식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되는 참가비는 무료이며, 모집대상은

계양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만9세~24세)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총 80가족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그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 20가족을 우선 선발한다.

최재은/기자

영등포구, "영등포 평생교육바우처 신청하세요" 20만원 상당 학습비 지원

영등포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행하는 '영등포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신청자를 8월 17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등포 평생교육바우처'는 만 19세 이상의 영등포 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평생학습 이용권으로, 총 20만 원의 금액이 담긴 카드 형태로 발급된다.

구는 코로나19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초래되는 평생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정규 교과과정 이외의 개인의 취향과 특기를 살린 평생학습의 제공으로, 개인의 역량 개발은 물론 지역 인재 육성, 미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바우처 사업은 올 12월 말까지 총

2,500명의 구민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영등포구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우선 지원한다.

단, 국가장학금, 국가 평생교육바우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지원받고 있는 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아울러 중복지원자, 포기자 발생에 대비해 100명의 예비당첨자를 사전 선정하고, 우선 지원대상자를 제외한 신청자 수가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공개 온라인 추첨을 통해 무작위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서에 기재된 참관인 신청란을 체크할 경우 추첨 현장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올해 미선정자는 본인 동의 시 별도의 신청 절

차를 거치지 않고도 내년도 사업 신청자로 자동 이월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구민은 8월 17일부터 31일까지 영등포구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영등포구청 미래교육과를 방문해 신청서, 학습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당첨자는 9월 9일 개별 통보될 예정이며, '한국조폐공사 chak' 어플을 다운받아 신청하거나,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정된 기간 내 우리은행 영등포구청 지점을 방문,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본인이 희망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수강 등록하면 된다.

바우처카드 신청은 10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기간 내 미신청할 경우 지원 자격이 취소되어 예비당첨자

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한편 구는 바우처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 지원을 위해, 우리은행, 우리카드 및 한국조폐공사와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바우처 카드의 제작, 발급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의 실시로 우리구가 명실상부한 '평생학습 선도구'로 발돋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심있는 구민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 누구나 자유롭게 배우고 마음껏 꿈꿀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영등포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서초구, 서초의 '첫 번째 그레타 툰베리'를 찾았다~! 은평구 역촌동, '알록달록' 다문화 소식지 발행

서울 서초구는 기후변화대응 선도 도시에 걸맞는 서초의 환경 커뮤니케이터 '그레타 툰베리 1호'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1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환경교육도시'를 선언하고 불과 8개월 만이다.

급격한 기후변화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작년 2020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당시) 김용호, 권 조영상, 서초구 지역환경교육센터인 (사)에코맘코리아와 함께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 도시 서초구를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으로 보전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담은 '환경교육도시'를 선언한 바 있으며,

구는 작년 7월에 수립한 기후변화 8대 정책 일환으로 관내 초등학교(학급·동아리별) 대상 환경교육프로그램인 '서초 에코프렌즈 페스타'(슬로건) 서초의 그레타 툰베리를 찾아서!] 프로그램을 전세계 기후운동의 출발점을 만든 스웨덴의 10대 소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처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지구를 위한 실천아이디어를 스스로 정의하고 발표함으로써 주변에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차별화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과정은 5월부터 7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학급·동아리별 참여학생모집을 시작으로, 기초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눈높이 교육이 찾아가는 대면 강의 및 비대면 영상교육으로 진행되었고, 학생들 각자가 지구와 환경위기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신청한 뒤 직접 실천에 옮기는 등의 과정과 그 결과를 영상에 담았다.

참여학생 244명 모두가 '그레타 툰베리'처럼 '기후변화와 나'에 대해 스스로 학습하고 실천하는 환경 커뮤니

케이터로서의 역할을 잘 해냈고, 모두가 상을 받을 만 했지만, 환경 관련 교수 및 전문 활동가로 구성된 환경관련 심사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특히 전세계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 보다 많이 배출한다는 가족사육 및 사료생산 줄이는 '고기 적게 먹기'를 비롯, '텀블러·에코백 사용하기', '음식 남기지 않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잘 하기' 등 현실적으로 온실효과를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실천활동을 잘 수행한 우면초 동아리(우면사랑실천단)와 반원초 3학년 3반 학생들이 우수한 성

정동희/기자

성동구, 이곳이 공원으로? 성동구 도심 속 흉물 고물상, 심터로 변신



서울 성동구는 이달 도심 경관을 저해하는 마장동 고물상 부지를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민 심터로 조성했다.

해당 지역은 마장동 770-9번지로 오랜 기간 고물상이 위치하여 낮에는 먼지와 기계소음이 가득하고 저녁 시간이면 노숙인들이 모여들며 주민들이 지나가기 꺼려하는 공간이었다.

구는 해당 지역을 쾌적하고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018년부터 해당 부지 340.2㎡를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로 지정하며 주민 심터로 조성하기 위해 차근차근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토지주 및 사업주와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토지 및 영입권 보상을 추진하며

지난해 보상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3월부터 조성공사에 착수하며 이달 부대공사까지 마무리하고 개장했다.

지난해 주민설명회 당시 제시되었던 의견도 반영했다. 계절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계수나무 등 7종 26주와 수수꽃다리 등 10종 1,615주의 수종을 추가하고 금계국, 가우라, 수국 등 13종 2,103본의 초화도 식재했다.

안전을 위해 CCTV도 설치하고 등 의자와 그늘막과 함께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도 설치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계를 녹지공간으로 구성하며 더욱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아울러 인도의 턱을 낮추며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횡단보도를 신선했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평소 인근거리를 자주 이용하는 박OO씨는 "예전에는 고물상 때문에 불법주차된 차들도 있고 뭔가 음산한 느낌이 드는 지역이었는데 공원이 만들어졌고 하니 동네가 환하게 밝아져서 너무 좋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 이번 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일상생활 속 작은 부분까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인천 서구·국립생물자원관, 자생식물 보급·확산 준비 '적척'



역할분담·협의체계 정립...지방·중앙 협업 시너지 극대화

인천 서구가 생태환경에 유리한 자생식물 보급과 확산을 위해 국립생물자원관과의 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서구는 지난 13일 국립생물자원관과 자생식물의 식재 및 관리를 위한 자문·컨설팅 등의 내용이 담긴 실증사업 추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국립생물자원관과 서구는 지난 4월 20일 자생식물 확산·보급, 나아가 '스마트에코시티 서구'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양자는 공원·녹지 조성, 4대 하천 복원, 세어도 야생화단지 조성, 스마트온실 및 실내농기질 개선사업 등 5개 주요 협업사업을 선정하고 각 사업의 실효적

김중남/기자



서울 은평구 역촌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2일 역촌동 이웃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다문화 소식지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역촌동 다문화 소식지는 2021년 추진되는 주민자치사업 중 하나로 다문화 분과에서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였으며, 지역 내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들이 이웃과 어울려 살아가는 다양한 이야기가 실려있다.

홍청자 주민자치회 다문화 분과장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문화 소식지 발행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역촌동 다문화 소식지는 연말까지 2~3회 추가 발행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게 역촌동주민센터, 은평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역촌 노인복지관 등 지역 내 주요 기관에서 비치될 예정이다.

신재교 역촌동 주민자치회장은 "역촌동은 다문화 이웃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 주민자치회에 다문화 분과를 구성하고 다문화 소식지 발행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소식지 발행에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현중 역촌동장은 "역촌동 다문화 소식지가 지역주민과 다문화가정 사이의 건강한 소통창구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센터에서도 다양한 문화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역촌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부평소방서,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

부평소방서는 18일 관내 안전센터 및 구조대 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심리상담 전문가(전문상담사 엄은숙 님)를 초빙하여 개인적 일상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현장 활동 대원들의 재난 현장 집중도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한다.

이번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은 불규칙한 교대근무와 참혹한 현장에 수시로 노출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적극적 심리치료 참여 유도 및 치료 장벽 완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다.

운영 방식은 PTSD, 수면장애, 우울증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사가 직접 소방서를 방문해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상담 필요시 전문상담사와 연락 후 면담을 실시한다.

김기영 서장은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재난현장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이상 심리를 경험하지만 정



신질환에 대한 편견으로 치료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라며 "이번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해 심신 건강 안정에 도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순희/기자

경기도, 산지 태양광발전소 74개소 점검 결과 37개소 안전조치 미흡



경기도가 산지에 설치된 중규모 태양광발전소의 풍수해 및 인명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군,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74개소 중 37개소에서 안전표지판 미설치, 토사유출 등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도는 점검과정에서 재해방지를 위해 전기사업 개시 전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와 관련된 전기사업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시군 산지관리 부서·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설비용량 500kW를 초과

하는 중규모 산지 태양광발전소 74개소(10개 시군)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반은 주로 ▲모듈과손 및 지지대, 인버터 내부 결속상태 ▲배수시설, 토사유출 및 누수 ▲고압 안전표지판 설치여부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발전소 정보안내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해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 37개소에 시정을 요청했다.

조치 유형별로는 ▲발전소 안내표지판 설치 28건 ▲고압표지판 설치 6건 ▲배수로 정비 4건 ▲지지대 보강 4건 ▲사면보호 4건 ▲울타리 보강 3건 등이다.

특히 일부 태양광발전소에서는 지지대 외부 노출과 경사면 토사유출 등이 확인돼 산지관리법에 따른 재해방지 및 하자보수명령 7건을 조치했다.

연천군 A태양광발전소의 경우, 발전소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배수로 설치가 미흡해 지반이 침식되고 있었다. 이에 도는 사업자에게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연천군에 산지전용준공지 하자보수명령을 요청했다.

도·시군-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산지 태양광발전소 합동점검단 구성

여주시 B태양광발전소에서는 기초 지지대가 외부에 노출돼 있었고 지반침식도 일어나 기초지지대 보수공사와 지반 보수공사 조치 명령을 여주시에 요청했다.

발전사업자가 재해방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지전용 허가 취소, 태양광발전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조치가 가능하며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군 산지부서가 대행자를 지정해 예치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보수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도는 이번 합동점검 이후 전기사업 개시 전 개발행위 준공검사가 선행되도록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사업법 개정을 건의했다. 일부 태양광발전소가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수급 계약 후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현재 태양광발전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실시해 배수로 적절 시공 여부, 토사

유출 가능성 등 안전성을 평가한다.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른 전기사업 개시신고 시에는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선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

결국 준공검사 전 전력수급 계약을 하고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채 사업을 개시하는 사례가 발생해 설비의 안전성이 평가되지 않아 재해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이에 도는 전기사업법 제9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김경섭 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산지 태양광발전소 재해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법적인 미비점은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광진구,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 '단속추진'



광진구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유지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구는 유흥주점, 콜라텍, 일반음식점 등 유흥시설 및 음식점 5,912개소에 대해 야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광진경찰서와 식약처, 생활방역사 등과 협력하여 1일 1회 이상 진행된다.

점검내용은 ▲집합금지 이행여부 ▲이용자 전원 출입명부 작성 ▲테이블 간 거리두기 ▲마스크 항상 착용 ▲영업제한시간 준수 등이다. 또한, 영업주를 대상으로 080 간편전화 체크인 가입을 안내하고,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집합금지 이행 및 방역수칙 준수를 홍보한다.

이와 함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등 문화사업·체육·종교시설 1,266개소 대한 점검도 추진한다.

주요방역 수칙에 맞춰 밤 10시 이후 운영제한과 실내체육시설, 오락실·멀티방의 경우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종교시설의 경우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 인원제한을 점검한다.

강성원/기자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성차별적 요소 현장 점검

공원과 공공시설 등에 대한 성인지 관점 모니터링 실시

천안시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과 17일부터 3일 동안 공원 및 공공시설 6개소에 대한 성인지 관점 모니터링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7일에는 남산공원, 쌍용초등학교 맞은편 안심귀갓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18일에는 천안박물관과 동남구청, 20일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직장맘지원센터의 순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안전공간조성·경제활동·가족친화·홍보분과로 이뤄진 시민참여단

은 현장에서 윤금이 성평등 전문관의 ‘공공시설 모니터링 방법’에 관한 이론수업을 청취한 후, 자발적으로 각 분과별로 현장을 둘러보며 여성친화적 관점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현장실습에 참여한다.

시는 공공시설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 후 결과별 토의를 통해 개선 사항을 취합 후 해당부서로 통보해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혜숙 시민참여단장은 “이번 모니터링에서 공공시설의 편리성과 안

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가 되도록 시민참여단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향후 천안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성평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점검하고 건의하는 등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중요한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김원호/기자



의정부시 송산1동, 광복절 연휴 빼벌계곡 방역 특별점검

함안군, 380개 기업체 대상 특별방역점검 실시

함안군은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기업체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및 연장에 따른 강화된 방역수칙 안내, 방역현장이 열악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목적으로 관내 기업체 중 380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지난달 관내 기업체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군은 산업건설공장이 총괄책임자를 맡고 산업건설공 직원 96명이 직접 참여하는 점검반을 편성,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 업체는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칠원읍

120개, 가야읍·함안면·군북면 85개, 법수면·대산면·산인면 90개, 칠서면·칠북면 85개 업체다.

이번 점검을 통해 방역현장이 열악한 업체에 마스크 1000부를 배부하고, 무더위에 대비해 부채 3000개 및 쿨도시 1200매를 전달했다. 또한 방역 및 코로나19로 힘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함안군 박장근 산업건설공장은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방역점검은 불가피하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리두기 단계별 사업장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함안군은 지난 5일부터 ‘기업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기업체 하계휴가



복귀자를 위한 임시선별진료소를 8월 12일부터 26일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공설운동장에 설치, 창원시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강영훈/기자

강남·강북지원청, 학원·교습소 특별 방역점검

울산 강남·강북교육지원청은 2학기 학사운영 정상화를 위한 코로나19의 확산 차단을 위해 학원·교습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4주간 특별 방역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 4차 대유행 상황에서 학습·심리·정서·측면의 결손과 사회적 저하 등 대면 수업 축소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효과적인 교육 회복을 위해 개학 전·후 4주간 ‘전국 학원 집중 방역기간’에 따른 조치이다.

특히 학원 등은 다중이용시설로 밀집도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환기 실태 점검, 종사자 방역관리 등을 중심으로 집중 현장 점검을 한다. 또한 교육장 등의 간부들과 함께 적극적인 학원 방역 강화를 위해 운영자 및 이용자의 책임 있는 방역수칙 준수에 대해 홍보한다.

아울러 점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15~17시에 집중되어 있는 방역점검을 오전, 저녁, 주말 등 다양한 시간대를 활용한 불시점검으로 내실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김기현/기자

의정부시 송산1동 주민센터는 대체공휴일 확대에 생긴 광복절 연휴기간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연휴의 첫날인 8월 14일 관내 빼벌계곡(산곡동 산 102번지 일원) 방문객의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민간·경찰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인파가 많은 해수욕장 등 바닷가보다는 도심에 소재한 계곡이 휴가지로 선호됨에 따라 새로운 방역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송산1동은 관내 유명 휴가지인 빼벌계곡(검은돌계곡)을 대상으로 연휴 기간 계곡 방문객들의 마스크 착용·4인 집합금지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 특별 점검을 단행하여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주력했다.

송산1동은 소속 공무원 및 통장과 더불어 송산지구대, 고산·산곡 자율방범대의 협조를 받아 민·관·경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지난 14일 오후 빼벌계곡 일원을 점검하였으며,

한영기/기자



실외에서도 2m 이상 거리두기가 안 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김진수 동장은 “방역 특별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라며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킴으로써 4차 대유행을 끝내고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양시, 경찰서 합동으로 불법 영업 유흥시설 적발



고양시는 지난 13일 야간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위반한 유흥시설 적발하였다.

고양시는 코로나19 대유행 지속에 따라 이번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방역강화를 위해 시청, 구청 및 경찰서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야간 단속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유흥시설은 영업이 금지되었지만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위반하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보함에 따라, 합동 단속

반은 해당 업소에 진입해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고 손님에게 술을 판매하고 있는 업소 현장을 확인하고, 영업주와 직원, 손님 등 총 10명을 적발하였으며, 영업주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박노선 식품안전과장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등 불법영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며, 코로나19 대유행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안산시 단원구, 불법유통광고물 야간단속 강화

안산시 단원구는 올 연말까지 야간에 집중 설치되는 현수막, 족자, 벽보 등 불법유통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낮이 긴 여름철을 이용해 주간단속을 피해 초저녁에 설치하는 불법광고물이 증가하며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구는 이에 따라 ▲아파트 인근 도

로변 현수막 ▲족자 ▲버스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붙이는 벽보 등에 대해 올 연말까지 야간단속을 강화하고 상습적 불법광고물 설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김기서 단원구청장은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불법광고물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의정부시, 수락산쉼터 조성사업 완료



의정부시는 수락산 장암동 구간 일원에 시민들의 안전한 산행길을 위하여 약 2km의 구간에 대하여 등산로 정비사업 및 쉼터를 조성하였다.

■ 아름다운 수락산에 6개 구간 등산로 운영

의정부시, 남양주시, 서울시 상계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수락산은 암벽이 많이 노출되어 있으나, 산세가 그리 험하지 않고 도심지 가까이 있어 주말이면 늘 등산객들로 붐비는 산이다.

현재 우리시는 수락산 정상(높이 638m)까지 석림사코스3코스, 동막골코스, 만가대코스, 흑석코스 등 6개 구간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급증하는 등산인구와 안전사고 증가 추세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실내 여가 활동이 위축된 반면, 등산인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어른신들과 중장년층의 취미생활로 굳혀졌던 등산이 점차 20~30대 젊은층까지 퍼져 이제 등산인구 천만 시대에 다다랐다.

이처럼 등산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산행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정된 등산로가 아닌 출입통제된 지역을 출입하거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뿐 아니라, 가파른 암벽 등의 구간이 있는 등산로에서는 다수의 추락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수락산 구간에는 "기차바위"라 불리는 가파른 암벽구간이 있다. 경사가 급해 미끄럼 및 추락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지만 수락산 명소로 자리잡아 해마다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 사고회수 : 13회 (사망1명, 중상2명, 경상10명)

■ 지속적인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의정부시는 늘어나는 등산 인구에 발맞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

리하게 등산로를 이용함은 물론 숲이 주는 혜택을 최대한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21년 수락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약 3억 1천만 원(도비 1억 2천500만 원, 시비 1억 8천500만 원)의 사업비로 석림사부터 전망대까지(1-2코스)의 약 2km 구간에 추진되었으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락산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했다.

- 불편하고 훼손된 구간은 데크계단 및 목교설치로 접근성 UP!!

훼손되어 통행이 불편한 구간과 미끄러짐 우려가 있는 급경사지 구간은 목재데크 계단을 설치하여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수락산을 오를 수 있도록 조성하였으며, 계곡부는 목교를 설치하여 우기철에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 사고 위험구간은 미리미리 알려주고, 안전시설 설치로 한번 더 예방!!

구간 내 안내판 16개소, 이정표 11개소 등을 정비하여 방향안내는 물론, 사고 위험구간에 대해 미리 등산객들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협소하고 급경사인 암벽구간에는 안전로프와 안전사다리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 수락산 쉼터전망대에서 느끼는 정상의 기쁨은 두배!!

수락산 정상 구간에는 시민들이 쉬 수 있는 쉼터 전망대를 조성하였다. 전망대에서는 의정부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으며, 산행으로 흘린 땀을 식혀줄 바람과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이다.

푸른 하늘과 맞닿은 전망대는 등산객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힐링공간으로 곧 수락산을 조망할 수 있는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 숲이 주는 혜택 녹색도시(G&B) 의정부

수락산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공사자재는 진입로를 내지 않고 헬기로 운반하는 등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등산로 정비사업을 실시하였다.

앞으로도 산림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는 등산로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들의 등산환경 개선에 노력할 것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위험구간의 등산로를 정비하고, 쉼터를 조성함으로써 의정부 시민들이 숲이 주는 무한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녹색도시 의정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수원시청소년재단, 수원시청소년참여위원회 '당신의 태극기를 자랑해주세요' 릴레이 캠페인 진행

오는 8월 15일은 76주년 광복절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광복절 기념행사가 연이어 축소·폐지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광복절을 기억하기 위한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수원시청소년재단(송영완이사장) 수원시청소년참여위원회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당신의 태극기를 자랑해주세요'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다

「당신의 태극기를 자랑해주세요」 릴레이 캠페인은 게양된 태극기 또는 태극기 사진이나 직접 그린 태극기 등 자신만의 태극기와 함께한 모습을 개인 SNS에 올림으로써 광복절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캠페인 참여 시, 해시태그(#)로 "2021 청소년이 1945 청소년에게", "815 빛을 되찾은 청소년" 등 지정 문구를 공유하는데, 이는 제17기 수원시청소년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한

문구이다. 이 문구들은 1945년 광복절 광복을 위해 노력한 수많은 청소년 운동가들을 기억하고 그 빛을 되새기는 청소년이 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 수렴, 참여 촉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로, 수원시청소년참여위원회는 19명의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 하반기에는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정책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송영완 이사장은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역사를 기억하고 주도적캠페인을 진행했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수원시청소년재단은 수원시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지니고 건강한 파급력을 일으키는 이러한 활동을 지원할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최정근기자



시흥시 '동물보호센터'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시흥시 동물보호센터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시흥시 동물보호센터 명칭을 공모합니다!
2022년 2월 개소 예정인 시흥시 동물보호센터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1. 시흥시를 떠올릴 수 있고
2. 동물 구조 보호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3. 어학하기 쉽고 기억에 남는 이름

참가대상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접수기간 2021.08.16. (월) ~ 2021.08.25. (수)
접수방법 신청서 작성 후 E-mail 접수 (goosle000@korea.kr) ※000은 숫자 ※접수된 명칭은 추후 선호도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예정
문의 시흥시청 축수산과 031)310-2246

시흥시는 '시흥시 동물보호센터'의 명칭을 시민 공모로 실시한다.

'시흥시 동물보호센터 조성사업'은 민선7기 정책목표인 유기·유실 동물의 신속한 구조·보호 및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의 실현을 위해 추진됐다. 약 20억 원을 투입해 시흥시 정왕동에 조성 중이며 내년 2월에 개소할 예정이다.

그동안 유기·유실 동물의 구조·보호 관련 업무를 안산시 소재 민간 동물보호센터에 위탁했으나, 시 지역의 센터 건립으로 유기동물의 신속한 구조 및 투명한 보호·관리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센터는 시민들의 반려문화 공유공간으로 조성된다.

시는 센터가 동물복지 실현을 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의 중심이 되는 공간인 만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동물보호센터 명칭을 함께 만들고자 이번 공모를 열었다.

'동물 구조·보호 본연의 기능'을 알리면서 '시민과 동물이 함께하는 공

간'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명칭을 공모 주제로 해, 8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동물보호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신청 방법은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이메일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심사 시 적합성·대중성·창의성을 검토해 최종 명칭은 심사위원회와 시민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추후 선호도 조사는 시 홈페이지 내 '참여소통 온라인투표(설문조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일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 동물보호센터는 유기 동물의 보호 기능을 넘어 반려문화 공유공간으로 조성되는 곳으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자는 의미로 명칭 공모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최정부기자

수원시, "코로나19로 지친 수원 청소년, 걷기대회 참여하세요"

수원시청소년재단이 '2021년 수원시 청소년 비대면 걷기대회'에 참여할 청소년을 17일부터 20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대회는 오는 9월 24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간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되며, 수원시 거주 또는 수원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만9~24세 청소년 500명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부 활동이 줄어든 청소년들의 체력을 키우고, 심리적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된다.

참가자들이 모바일 앱 '워크온(Walk On)'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수원시 청소년 걷기대회 커뮤니티'에 가입, 대회 기간 동안 어디서나 자유롭게 걷기 운동을 실천하면 된다.

걷기 기록(걸음 수)과 인증 사진을 제출한 우수 참가자 16명(최우수상 1명·우수상 5명·장려상 10명)을 선정해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명의 상장과 10~50만 원 상당의 상품(상품권 등)을 증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20일까지 수원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수원시 청소년 비대면 걷기대회 참가자 모집' 공고문에서 참여 링크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청소년재단 관계자는 "비대면 걷기대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2021, 수원시청소년 비대면 걷기대회(Untact)

2021.9.24. - 9.30.

1. Walk On 앱 설치
2. Walk On 앱 실행
3. 걷기 기록 확인
4. 인증 사진 촬영

우수참가자 시상

최정근기자

광명소방서장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현장 직원 격려 방문



신속하고 안전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진행을 위한

광명소방서는 17일 광명시민체육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활동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최근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대상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무더위 속에서도 코로나19백신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접종될 수 있도록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직원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격려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최준 서장과 이현숙 광명시보건소장은 접종센터의 전반적인 운영현황 및 시민들의 백신접종 과정을 체크하고, 현장 직원들과 구급대

원의 근무환경을 확인하는 한편, 원활한 접종 진행을 위해 소방서와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광명소방서는 예방접종센터로 지정된 광명시민체육관에 구급차량 1대와 구급대원 2명이 지원되어, 백신접종 후 이상 반응 환자 응급처치 및 긴급 이송, 센터 내 질서 유지 등 업무에 임하고 있다.

최준 광명소방서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관계자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시민의 안전한 백신 예방접종을 위하여 앞으로 남은 접종 일정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필요한 소방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전순희기자

의왕시 내손도서관, '북스타트 책놀이 프로그램' 운영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 생애주기별 독서활동 지원

의왕시 내손도서관은 생애주기별 독서활동 지원을 위한 '2021 북스타트 책놀이 프로그램'을 오는 9월 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6세 반(유아 및 보호자)과 7세 반(유아 및 보호자) 2개 반으로 운영되며, 오는 9월 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접수는 8월 25일 오전 9시부터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10팀씩(20명)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그림책을 소재로 한 언어, 미술, 동작 등 다양한 책놀이 활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코로나19에 대비해 실시간 양방향 소통 프로그램인 ZOOM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김미자 내손도서관장은 "어린 시절 습관이 평생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내손도서관에서 준비한 책놀이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긍정적인 독서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원종균기자

2021 북스타트 책놀이 프로그램 3기

내손도서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 생애주기별 독서활동 지원'

프로그램	대상	일시	장소	비고
그림책 속 놀이 보따리	6세 유아 및 보호자 (10명, 20명)	9.9. - 10.14. (매주 목요일(9시) / 수요일(10시))	16:00-16:50	제한없음 (명도안내)
그림책 속 놀이 보따리	7세 유아 및 보호자 (10명, 20명)	9.9. - 10.14. (매주 목요일(9시) / 수요일(10시))	17:00-17:50	제한없음 (명도안내)

온라인 ZOOM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ZOOM만 책, 화면 공유 등 기능은 사전 설명회 참석 시 제공-프로그램)

의왕시 내손도서관 | http://www.uwlib.or.kr | 031)345-2936

다.

북스타트 책놀이 프로그램 수강료는 무료이며, 재료비 등 프로그램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내손도서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원종균기자

김상호 하남시장, 아동·청소년 스스로 목소리 내는 아동친화도시 만들 것

김상호 하남시장은 지난 13일 시청 접견실에서 하남시 청소년대표 7명과 차담회를 갖고 청소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차담회는 시장과의 대화를 희망한 청소년들의 제안에 따라 이뤄졌으며,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응원하고 목소리를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차담회에는 덕풍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김나경 위원장(덕풍중 3), 청소년참여위원회 김예성 위원장(꿈드림 19세), 학교 밖 청소년 윤서연(꿈드림 18세), 청소년의회 김진주 의장(하남중 3), 청소년수련관 김어진 청소년관장(고려대 1),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배은진 위원장(미사강변고 3), 아동참여위원회 전유라(덕풍중 2) 학생이 함께했다.

이날 청소년대표들은 ▲청소년 수당 ▲청소년 제안 플랫폼 ▲자매도시 유학 지원 ▲청소년문화의집 활성화



방안 ▲진로 진학 등 청소년들의 권익을 위한 제안과 함께, 자전거 활성화 방안, 덕풍천 가꾸기 등 환경을 위한 아이디어와 지역 일자리 확대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김상호 시장은 “시는 아동과 청소년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목소리를 내

고, 그 의견이 예산과 정책에 반영되는 실질적 참여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들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한 아이디어가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 권리의 주체로서 책임감 있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강호기자

수원시, 외국인 주민들에게 광복절의 의미 알렸다

14일 '수원(One)데이', 역사 골든벨·한국 역사를 알아가는 첫걸음 진행

수원시가 외국인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활동 '수원(One)데이' 세 번째 시간으로 역사골든벨을 열어 외국인 주민들에게 광복절의 역사와 의미를 알렸다.

수원시 국제교류센터는 14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외국인 주민 30명과 수원시 대학생으로 구성된 공공외교단이 참여하는 '역사 골든벨: 한국 역사를 알아가는 첫걸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온라인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날 프로그램은 외국인 주민들에게 광복절 관련 영상을 보여주고, 우리나라와 수원의 역사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와 참가자들이 각자 모국의 역사를 소개하며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뒤 수원시 공공외교단이 내는 문제를 골든벨 형식으로 풀어가며 역사를 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수원시 국제교류센터는 이날 프



그램에 앞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영어로 소개하는 소책자를 제공했다. 특히 유관순, 안중근 등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에 대해 알아보는 자료도 함께 보내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대해 알리는 계기로 삼았다.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관계자는 “광복절 연휴를 맞아 외국인 주민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면서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수원데이는 올해 총 8회 진행된다.

최정근기자

광명시, 지구를 지키는 태양의 도시 22일 에너지의 날 시민과 함께 '에너지의 소중함' 되새긴다



광명시는 8월 22일 제18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민과 함께 에너지의 소중함을 다스리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에너지의 날은 에너지의 소중함을 알리고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에너지 시민연대에서 제정한 기념일로 2004년부터 전국에서 동시 진행되는 행사이다.

시는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에너지의 날 행사주간으로 정해 32개 시민사회단체와 학교가 연합해 청소년 캠페인과 권역별 행사를 진행한다. 시는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하고 7차례 회의를 거쳐 에너지의 날 행사기획, 캠페인, 홍보 방법 등을 준비했다.

17일에는 넷제로카페 환경영화제+채식브런치 활동(가치카페), 재활용설명과 에코물품 전시(철산상업지구), 18일에는 기후위기·에너지 절약 캠페인(철산역 주변), 발전기 체험(목감천 너부대교), 19일에는 재생에너지 체험(하안사거리), 20일

에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홍보(한내근린공원), 분리수거코딩과 에너지캐릭터 만들기(시민체육관)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진행할 계획이며, 자세한 행사내용은 광명시청 누리집과 광명시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의 날인 22일에는 오후 1시부터 평생학습원 광장에서 초소형 전자자동차 전시와 시승, 쿨루프와 그린뉴딜 실천 홍보 활동을 펼친다.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는 탄소중립 토크콘서트를 오후 9시에는 소동행사도 개최한다.

광명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는 토크콘서트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개그맨 노정렬,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정하은 청년이 참여하며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광명시 소년·소녀 합창단, 시립합창단, 농민가수 김백근 공연도 마련돼 있다.

제18회 에너지의 날 행사 추진단

장인 강주례(광명나래iCOOP생협이사)는 “‘지구를 지키는 태양의 도시 광명’을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가 에너지 절약과 기후위기 극복에 많은 시민이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승원 시장은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과 탄소중립이야말로 미래세대를 위한 마지막 기후위기 극복의 기회라 생각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쿨루프 사업,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시민교육, 시민참여형 에너지 공동체 형성, 미니태양광 보급, 에너지 전환 넷제로 카페에 대한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그린모빌리티 확산 보급을 위해 گیا AutoLand 광명 앞 유류부지에 수소복합충전소를 구축해 내년 상반기 상용화할 계획이다.

전순희기자

김포시, 2021년 중봉도서관 9월 독서의 달 '아주 사적인 궁궐 산책' 운영



김포시 김서울은 박물관을 좋아하는 유물 애호가로서 작가이자 문화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 1인 출판사 '호미와 낮'을 운영 중이다.

저서는 「유물즈」, 「뮤지엄 서울」, 「아주 사적인 궁궐 산책」 등으로, 박물관과 유물·유적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

이번 강의는 김서울 작가의 새로운 시선으로 발견한 고궁의 모습들부터 유물과 유적에 대해 역사 위주의 설명이 아닌 현대적인 관점과 언어로 쉽게 풀어주는 시간을 갖는다.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에서 벗어나 본인의 좋아하는 요소를 통해 취향발견을 찾는 감상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강좌 접수는 8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중봉도서관 홈페이지 문화행사에서 가능하며 선착순 온라인 접수로 30명을 모집한다.

정동희기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남원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광한루원의 봄



바래봉 철쭉

전북도,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개소

전주시에 터 잡아... 학대 피해 장애인 3개월 가량 입소 가능



전북도는 학대 피해 장애인 긴급 보호와 심리치료 지원 등을 위한 쉼터가 전주시에 자리잡고 운영을 시작했다.

전북도는 학대 피해 장애인 긴급 보호와 심리치료 지원 등을 위한 쉼터가 전주시에 자리잡고 운영을 시작했다.

쉼터는 가정이나 거주시설 등에서 학대받은 장애인을 가해자와 분리해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역할부터 심리 상담, 지역사회로의 복귀까지 지원한다.

쉼터 운영은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연대에서 맡는다. 운영기관은 지난 4월 공모 및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2

년 6개월동안 운영한다.

쉼터에는 전문종사자 3명이 주7일 24시간 체제로 근무한다. 이들은 심리상담 및 치료, 음악·체육 프로그램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설은 전북에 거주하는 학대 피해(가혹행위, 착취, 유기, 방임 등)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입소기간은 3개월 이내다. 부득이한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전북도는 효율적 쉼터 운영을 위해 권익옹호기관을 비롯해 지역사회의 서비스 제공기관, 각 시군 등 유관기관과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서기선 전북도 장애인복지과장은 "학대받은 장애인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라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구례군,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완료



구례5일시장 신속한 화재 대응체계 구축

구례군은 6일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화재발생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구례5일시장에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해 국비 포함 총 1억3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장 내 연기, 열, 불꽃 등 화재 원인을 감지하는 화재감지기를 141개 점포에 설치했다.

화재알림시설은 화재 발생 시 점포 내 설치된 무선 감지기가 화재원인을 감지하여 소방서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동시에, 점포주 및 시장관

리 담당자에게 신속히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구례군과 소방서, 상인회 관계자들은 감지시설 시연을 통해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8월부터 화재알림시설을 정상 운영 중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전통시장은 점포 간 공간이 좁고, 통행로가 일원화돼 있지 않아 불이 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후전선 정비, 소방·하수시설과 노후 아케이드 개보수를 통해 시장환경을 개선하고, 공연장과 체험 시설·쉼터 등 즐기기 체험하는 알콩달콩 장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최상홍/기자

남원형 공공 배달앱『월매요』구축 협약식 가져!

- 모바일 상품권 10% 할인 구매하고, 월매요 앱 주문하여 1천원 포인트 받자 -

남원시는 8. 17.(화) 11시에 ㈜월매요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남원시지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남원형 공공 배달앱『월매요』구축 및 성공적 안착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등 비대면 배달시장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대형 배달앱 회사의 높은 이용수수료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적지않은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시에서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공공배달앱 구축을 검토해 왔으나, 도시 규모와 상관없이 프로그램 개발 및 위탁 운영에 많은비용이 소요돼 배달앱 도입에 고민해왔다.

시에서는 급변 초부터 지역의 민간 업체사와 최소 예산으로 공공배달앱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끝에 우리 지역의 소도시 특성에 맞는 특화된 배달앱 프로그램을 완성중에 있으며, 가맹점 모집기간을 거쳐서 곧 시민앞에 선보일 예정이다.

배달앱 명칭은 시청 공무원들 대

상으로 공모해 가격을 물어보는 수준한

사투리 '월매요?'와 '출판전 월매'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월매요'가 선정됐다.

남원형 공공배달앱『월매요』는 남원사랑 모바일 상품권과 연계 운영됨으로서 배달 주문시 건당 1천원의 모바일상품권 포인트를 적립 받고, 외식업체 가맹점은 배달앱 이용수수료를 매월 1만원씩 시에서 지원 받는다.

아울러 퀵배달업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과 헬멧, 조끼 등의 안전보호장비를 지원함으로써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배달종사자들의 사회안전망도 강화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재봉 남원시지부장은 "월매요가 관내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자의 배달비용을 절감시켜주는 희망의 배달앱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월매요" 앱회사 박종수 대표



는 "현재 배달앱은 가맹점과, 시민의 혜택에 맞춰 실용 수준의 사양으로 시작하지만,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고급화 작업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지금의 대형 상업화된 사회에서 소도시 자치단체가 살아남는 길은 시민들이 푹푹 못쳐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지역 내순환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길뿐이

다"며, "월매요 앱은 소상공인의비용 부담을 절감하고, 시민의 기본 생활비 절약을 통해, 한 개의 기업유치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시민 모두가 똑똑한 소비로 남원시 경제에 힘을 불어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밝혔다. 이남출/기자

문화예술교육 개발을 함께할 고창 예술인을 찾습니다.

(재)고창문화관광재단, 오는 19일까지 '2021 예술발전소:온에어' 예술인 모집

고창문화관광재단은 문화예술교육 개발을 위한 '예술발전소:온에어' 참여 예술인을 모집한다. 본 사업은 도내 5개 문화재단 협력 사업인 '공역·기초재단간 문화예술교육 개발 협력사업'으로 올해로 2번째 운영하고 있다.

올해 진행될 '예술발전소:온에어'는 고창 내 거주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예술인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참여 예술인에게는 문화예술교육을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전문가 자문 워크숍 추진 후 개발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강사비와 재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대비한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함께 개발하여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19일까지 고창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할 수 있다. 예술인들이 다양한 장르의 예술교육을 개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임실군, 약이 되는 향토 음식 교육 실시



임실군이 약선 향토 음식 교육을 지난 12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총 5회(매주 화·목요일)에 걸쳐 추진한다.

이 교육은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에 발맞춰 건강 기능성 재료 및 조리법을 활용한 '약이 되는 향토 음식'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첫 교육은 피로회복에 좋은 헛개나무 열매와 감초를 활용한 약선비빔밥, 약선수육 등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요리가 가능하고, 현대인에게 인기 있는 실습 메뉴를 편성하여 교육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석한 한 교육생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선 재료를 활용한 실습을 통해 향토 음식에 대해 새롭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고, 이곳에서 실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족 건강도 챙길 수 있어 보람 있고 즐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향토 음식의 영양과 우수성 홍보로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모두가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하은/기자

장흥군,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하는 청년정책 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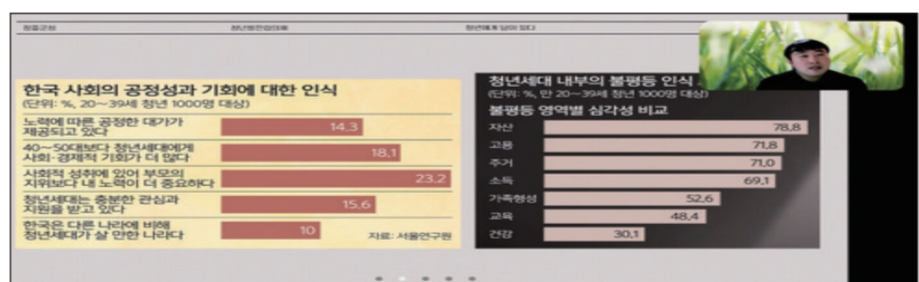
장흥군 청년발전협의체 역량 강화 온라인 교육

장흥군은 지난 8월 13일 청년발전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장흥군 청년발전협의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전문강사의 비대면(Zoom 온라인) 강의로 진행됐다.

교육 과정은 3개 분야로 나뉘어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책 결정 과정 및 정책제안서 작성 방법, 청년위원간의 상호소통, 역할 등 타지자체 청년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장흥군 청년발전협의체는 2021년 2월 공개 모집을 통해 위원 15명을 위촉하여 일자리, 문화, 복지, 농·어업의 4개 분과로 활동하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역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청년정책 발굴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한편 강의에 참석한 위원은 "매일 정기회의와 병행하여 청년발전협의체 위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례 예시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가 진행되어 청년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김장길/기자

장성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개인분·사업소분 부과...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장성군이 2021년 8월 주민세 23,522건에 대해 3억 7천만원을 부과했다.

올해부터는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매년 7월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 개인·법인사업자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됐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2021년 7월 1일 현재 장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이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납부하거나 위탁,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원래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과세체계 개편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혼란방지와 납세 편의를 위해 군은 올해 한시적으로 납부서를 송달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민세는 주민복지 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오홍근/기자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주민세 납부안내

2021년 8월 1일~8월 31일

신고·납부방법

2021년 8월 1일~8월 31일

신고·납부방법

2021년 8월 1일~8월 31일

신고·납부방법

정읍시, 쾌적한 휴식 공간 '장명동 소공원'에서 잠시 쉬어주세요!

정읍시 장명동 행정복지센터가 구룡동 600-7번지 일원 소공원을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으로새 단장을 마치고 지난 주말 전면 개방했다.

구룡도 1호선에 소재한 장명동 소공원은 그동안 시설 노후와 인근도 1호선 개통으로 시민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이에 장명동은 시민이 언제나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소공원 조성을 목표로 계획 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소공원은 주차장 아스콘 포장과 화장실 내부 리모델링·외부 도장, 벤치 설치 등의 시설 정비를 통해 쾌적한 공간으로 재탄생

했다. 또한 점조 제거와 초화류 식재로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밭을 조성했고, 여성 화장실 비상안전벨트 설치로 안전까지 확보했다. 이와 함께 관리인을 지정해 시민들이 소공원을 보다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공명식 동장은 "주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정읍하브루트 진입로에 소재한 만큼 향후 정읍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하은/기자

광주광역시, 지역대학 홍보슬로건 공모

31일까지 접수, 지역대학 진학률 높이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목표

광주광역시는 지역대학 홍보마케팅의 일환으로 '지역대학 홍보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미충원 현상에 따른 지역대학 위기가 곧 지역의 위기라는 인식하에 지역대학 살리기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응모자격으로 연령 및 거주지 제한이 없으며, 공모주제는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 시 지역대학으로 진로를 결정하도록 인식 개선과 장점을 부각해주는 창의적이고 상징적인 문구로 구성하면 된다.

참가신청은 16일부터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해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되며, 접수기간은 17일부터 31일까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대학발전협력단(062-613-129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심사기준은 적합성(지역대학에 대한 인식전환에 기여하는가), 창의성(참신하고 독창적인가), 대중성(공감을 주는 내용인가), 상징성 및 활용성(홍보 마케팅에 활용하기에 충분한가)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수상작 8점을 선정할 이후 시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해 시



상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최우수 1명 200만원, 우수상 2명에게 각 100만원, 장려상 5명에게 각 20만원 상당의 광주생카드가 지급된다.

심사 결과는 다음달 17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수상자들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김덕윤/기자

담양군, 카드형 담양사랑상품권 발행



담양군은 담양사랑상품권 지류형, 모바일형에 이어 카드형 상품권을 발행한다.

카드형 상품권은 구매자가 금융기관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여 사용의 편리성과 부정유통 문제의 문제를 해소하였다. 아울러, 일회성 사용으로 소모되는 지류상품권의 발급·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어 점차 확대 발행될 계획이다.

충전식 체크카드 형태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앱(지역상품권 작'chak')을 통해 회

원가입이 가능하고 계좌 연결 및 카드 발급하여 충전 후 사용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농업은행 군지부 및 읍·면 농협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분증 및 본인인증 가능한 휴대폰을 지참해야 한다. 단, 신청 및 새마을금고는 2021. 10. 20. 카드 발행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월 구매한도는 50만원으로 담양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결제금액이 부족하거나 비가맹점에서 사용 시 연결된 개인 통장계좌에서 결제가 된다.

군 관계자는 "한장의 카드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 카드형 담양사랑상품권 이용이 확대되어 지역상권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카드형 담양사랑상품권의 많은 신청 및 사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홍균/기자

영광군, 제1회 '일곱빛깔' 선행의 날 행사 개최

청년에게는 희망을, 마을에는 활력을 주는 변화의 꽃바람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지킨 가운데 참석인원을 최소화했다. 1부는 청년들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선행공유 캠페인 영상 시청, 청년이 공동으로 재배한 농산물 선물상자 전달식, '일곱빛깔' 바랍게비 퍼포먼스 등 캠페인 행사를 진행했으며, 2부는 고추장아찌 만들기, 바람게비 리본 브로치 만들기 등 청년들의 재능을 나누는 다양한 체험 행사로 진행했다.

행사를 주최한 '일곱빛깔' 청년단체는 2021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선정되어 청년마을공동체 공유주택·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유농장에서 함께 재배한 농산물 판매 수익금을 기부하는 선한영향력을 보여줬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고 마을에 여유가 없는 시기에 이런 선행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청년이 함께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구례군, 불원복(不遠復) 태극기로 뜨거웠던 항일운동재현

구례군은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구례 주조장에서 불원복 태극기로 뜨거웠던 항일운동을 재현하였다.

이 행사는 역사적 공간인 '구례 합명주조장'이 주민문화 공간인 '구례주조장'으로 재생되었음을 알리고 주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구례군과 구례군도시재생지원센터, 살릴레오마을관리협동조합, 위드앤씨의 관계자는 최소인원만 모여 대형 불원복 태극기를 주조장 외부 벽면에 게첨하였으며 그날의 함성을 의미하는 소형 태극기 200개를 꽃아 역사적 사실을 기리었다.

불원복(不遠復)이란 "머잖아 반드시 광복이 된다"는 뜻으로 녹천 고광순의병장이 피아골 일원에서 의병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하여 태극기에 혈(血)로 새겼다고 한다.

이 불원복 태극기는 1919년 3.1 만



세운동에서 사용되었으며 1945년 광복 다음날인 8월 16일에는 구례군민 200여명이 합명주조장 마당에 모여 불원복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불원복을 실현하였다

한다. 그리고 현재는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문화재 제394호로 지정되어 독립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다.

주민문화공간으로 재생된 합명주

조장은 과거 항일운동 단체인 금란회의 활동 근거지였다. 8월 16일 만세운동 후 대한민국 최초로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던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지역의 빈민을 구제하고, 1947년 7천석의 토지를 무상배부 하는 등 사회적 책임과 나눔을 실현하는 애민(愛民) 창고였다.

행사를 주관한 우두성 위원장은 "주조장은 근현대사의 역사가 녹아 있고 민초들의 삶의 애환과 한과 정이 녹아 있다. 가을 국화 축제에 아름다움 예술 공간으로 승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순호 군수는 "합명주조장을 구례군민이 주인이 되는 구례주조장으로 개명하여 열린 사랑방으로 새로운 도시재생의 거점이 되도록 하겠으며 독립정신과 나눔의 정신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승/최상홍/기자

전남도 김영록 지사, 코로나로 힘든 시장 상인 격려

목포 종합수산물시장·청호시장 방문... 상인회와 장보기 행사도 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광복절 대체휴일인 16일 목포 종합수산물시장과 청호시장을 잇따라 방문, 코로나 방역조치와 폭염 등으로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로하고, 시장상인회와 합

계 장보기 행사도 했다.

김 지사의 이번 방문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지역 감염 확산으로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시장을 찾는 이윤객 감소로 힘들어하는 상인들의 애로사항

을 듣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상인들에게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원 등 지원정책과 함께 시장내 노점상의 소득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자 등록 요건 폐지 등 상인을 위해 전라도가 노력한 성과 등을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전통시장 상인들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준데 대해 감사의 인사도 전했다.

전남도는 지난 2월 전통시장 상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전통시장 내 미등록사업자와 노점상인 4천530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등 11개 업종에 대해 총 99억 원의 긴급민생지원금을 지급했다.

3월에는 국회와 정부에 수차례 건의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시

장내 노점상을 추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사업자등록 요건에 막혀 소득안정자금 지원에서 배제됐던 상인을 위해 정부에 지급 조건 완화를 건의한 결과, 지난 9일 사업자등록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도내 4천200여 시장상인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길이 열렸다.

김 지사는 점포를 방문해 전남행복지역화폐로 상품을 구입하면서 "코로나19의 4차 유행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해 모두가 어렵지만 특히 전통시장 상인들을 포함한 지역의 소상공인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며 "도민들께서 방역 질서를 잘 지키면서 이웃인 전통시장 상인들을 돕는 착한 소비에 나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강진군, 전복양식피해 어업인과 간담회 개최

전복양식 피해어업인의 생계 대책 및 복구방안 협의



강진군이 지난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복양식어업인의 구제에 나선다.

군은 8월 12일, 강진군 수협 대회의실에서 지난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어가의 생계 대책 마련과 신속한 피해복구 방안 마련을 위해, 이승욱 강진군수와 김성호 강진군 전복양식 협회장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복양식 피해 어업인과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군 관계자는 전복 피해 양식어가에 대한 지원 사업비 80억 원을 해양수산부로부터 확보해, 전라남도 시행지침 이후 전복 우량 종묘와 재해예방 그물망 설치지원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전복 폐사, 코로나19 확산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피해 어가가 생업으로 조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GSP(골든씨드프로젝트)

종묘를 신속히 확보하고, 그물망을 기존 수심 3m에서 5m까지 낮추는 그물망 지원사업을 통해 집중 호우, 고수온 등 매년 반복 되는 자연재해의 취약 부분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군수는 또 "앞으로 해양수산부·전라남도도와 함께 전복 종묘 중패 입식지원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는 등 군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어가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 달 집중호우로 가두리양식장 내 담수가 유입돼 염분 농도가 낮아지면서 약 40ha 면허지에 2,261만 미의 전복이 전량 폐사하는 등 4백 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김장길/기자

무안군, 삼향 북룡마을 주민공동체 농촌체험 행사 개최

무안군은 삼향읍 북룡마을에 무안의 푸른 숲과 휴내음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인 체험농장을 조성하고 9월 11일 까지 꼬불꼬불 강녕이길 행사를 진행 하고 있다.

꼬불꼬불 강녕이길 행사는 북룡마을 주민들이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개최했으며, 강녕이길 미로 탐방, 작물수확 체험, 동물 먹이주기, 액자 공예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행사는 삼향읍 지산리 북룡마을 일원(삼향읍 지산리 933-18)에서 성황리에 진행 중이며, 만 65세 이상 노인

과 36개월 미만 영유아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예약 시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행사 주최자인 제이러브팜 이동호 대표(2019년 귀농)는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농촌 교육체험과 자연치유 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산 군수는 "꼬불꼬불 강녕이길 행사가 농촌을 방문하는 도시민들에게 뜻깊은 경험을 선사하는 교육과 체험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체험과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한 농장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향읍 북룡마을은 휴업자가 없고 98세의 고령 어르신도 거주하는 등 건강 장수마을로 알려져 있다.

조기석/기자



하동아트갤러리, 슬기로운 탐구생활展 오픈



하동군은 2021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10월 10일까지 문화예술회관 아트갤러리에서 ‘슬기로운 탐구생활-사람, 사회, 자연 그리고 의도된 자연’ 전시회를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

‘슬기로운 탐구생활’展은 가상현실의 매개 없는 투명한 몰입감 즉 작품에 동화돼 직접 체험하고 느껴지는 감동을 추구한다.

작품은 고정되고 보여야만 하고, 사람은 작품을 봐야만 하는 일방적인 전시에서 벗어나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는 전시가 존재한다.

작품을 통해 작가가 추구하는 예술의 사유와 동시대 이미지의 재현을 감각과 과학기술융합으로의 융합을 통한 표현을 시도한다.

코로나 시대 인간의 삶과 생명 그리고 예술의 관계를 기꺼이 예술의 탐구와 성장적인 질문을 던지고 남녀노소 여느 연령층이나 쉽게 접하고 다가서는 친숙한 이미지의 체

험형 미술전시로 다가가고자 한다.

전시를 본다는 개념에서 확장된 참여와 더 나아가 교감하는 형태의 이번 전시는 전시 미디어를 인식하지 못하게 사라지도록 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슬기로운 탐구생활’展에는 모두 7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먼저 김민송

작가(회화·VR)는 몽환적인 풍경 속 이국적이며 신비로운 식물들로 삶의 기억과 추억을 소환한다.

김인지 작가(회화)는 사회의 규칙과 타인의 기대에 의해 반복적이고 수동적인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양한 오브제로 표현하며, 양현준 작가(회화·조각)는 자신

의 삶과 이름을 잃어버린 어머니라는 대상을 어린 소녀로 치환한다.

김태인 작가(조각·미디어파사드)는 스릴 조각작품과 미디어파사드의 만남으로 상상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며, 故 박순민 작가는 우연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들을 통해 현대인의 사회를 담아낸다.

김종선 작가(조각·미디어파사드)는 토끼로 형상화된 가장 평범하면서도 일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꿈의 이야기를 담았으며, 이지훈 작가(회화)는 도시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반복된 삶의 면면을 관찰한다.

‘슬기로운 탐구생활’전은 다채로운 작품 연계 프로그램도 주목해 볼 만하다. 김인지 작가와 함께 식물도감 드로잉 클래스를 운영하며, VR 장비를 활용해 김민송 작가의 작품 ‘망각의 정원’ 속에서 들어가 가상현실에서 그려보는 드로잉 체험도 마련된다.

최광용/기자

울산교육청, 세상과 아이들을 잇는 따뜻한 실천 교육복지이음단 활동 시작

울산시교육청이 취약계층 학생에게 개인 맞춤형 복지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이음단의 교육후견인 모집을 완료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교육복지이음단은 울산교육청이 지역사회 건강한 이웃들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학습, 심리·정서, 돌봄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촘촘한 교육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올해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교육복지이음단은 하반기 시범 운영을 위해 7월부터 북구 농소, 동구 화정·방어진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해당 지역의 청소년 및 사회복지 기관과 협력해 시범지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했다.

그 결과 학부모를 비롯한 마을공동체, 마을씨앗동아리, 작은 도서관 활동가, 지역사회 내 봉사단, 직장인 등 24명으로 구성을 완료했다.

교육복지이음단과 연결할 학생은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에서 장기적 위기 지원과 관찰이 필요한 학생을 추천받았다.

특히 한글을 읽고, 쓰기가 어려운 아이, 가족의 해체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 또래 관계가 어려워 학교에 가기 싫은 아이 등 다양한 어려움

을 가진 아동들이 건강한 시민들과의 일대일 활동을 통해 학습, 심리·정서, 돌봄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교육복지이음단을 통해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성장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아이의 성장과 생활환경을 지속해서 관찰할 것이다.

또한 아이에게 닦칠 수 있는 위기를 예방하고, 혹 위기가 닦쳤더라도 아이를 빠르게 학교 또는 공공기관에 연결하고 적절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기현/기자

고성군 송학동고분군에 띄워진 애드벌룬 ‘잠시멈춤’…눈길



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잠시멈춤’을 통해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사)건설기계개별연맹사업자협의회 경남고성지회(회장 최기수)와 대한건설협회 고성군협의회(회장 이장진)는 자발적으로 송학동고분군에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방법, 대면 모임 잠시멈춤’이라는 현수막이 부착된 애드벌룬을 띄워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해당 단체 관계자는 “고성군의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애드벌룬 홍보를 진행하게 됐다”며 “군민들과 송학동고분군을 비롯한 고성군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잠시멈춤’ 캠페인에 동참해줄 바라다”고 말했다.

백두현 군수는 “(사)건설기계개별연맹사업자협의회 경남고성지회 최기수 회장과 대한건설협회 고성군협의회 이장진 회장을 비롯한

(사)건설기계개별연맹사업자협의회 · 대한건설협회 잠시멈춤 캠페인 동참

회원들의 적극적인 캠페인 동참에 감사드린다”며 “군민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나와 가족, 이웃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내겠다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잠시멈춤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한편 8월 17일 기준, 고성군에서는 총 6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대다수 확진자는 다른 지역 방문을 통해 감염되어 이들이 가족과 지인까지 전파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최근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감염된 상태로 휴가나 방학 기간에 고성군을 방문해 전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강영훈/기자

울산수학문화관, 여름방학! 더 뜨겁게 수학을 탐구해요!

울산수학문화관 여름방학 체험 프로그램 운영

울산수학문화관(관장 류해수)은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들이 즐겁고 깊게 수학을 탐구할 수 있는 여름방학 수학 체험프로그램인 ‘여름방학 수학실험실’을 지난 10일~13일 4일간 운영했다.

이번 여름방학 수학실험실은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스스로 참여하고 싶은 주제를 선택하는 학생 중심 수학 심화 탐구 프로그램이다. 초등 프로그램은 쌍대다면체, 오토마타에서 도형 탐구 등의 주제로, 중등 프로그램은 텐세그리티, 바코드와 이진법, 세파타카

로 등 총 8개의 교육과정 기반의 수학 개념을 집중 탐구할 수 있도록 해 평소 수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에게 수학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울산수학문화관은 8월 10일 개관해 수학에 흥미가 많은 학생, 수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 다양한 수학적 태도 수준의 학생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준비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여름방학 수학실험실에 참여한 농서초 6학년 이현승 학생은 “코로나 19로 인한 오랜 원격수업으로 수학에 대해 충분히 알기 어려웠는데 이번 수업에서 교구로 직접 만들어 보고 수학 토론을 하면서 수학 주제를 깊이 탐구할 수 있어 좋았다”고 전했다.

김기현/기자



금정문화재단, '비대면 불금버스킹' 참가자 모집



(재)금정문화재단은 지역대표 상설공연인 무엇보다 ‘불금버스킹’ 하반기 공연에 참여할 예술가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공연은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온라인 중계된다.

2019년 시작해 올해 3년째를 맞이하는 ‘불금버스킹’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마다 부산대역 1번 출구 옆 문화나눔터 야외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거리 예술 공연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5~6월 5회 개최됐다.

내달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5회 진행될 하반기 공연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정예술공연지원센터 등 실내에서 공연을 활용해 금정문화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중계하는 방식이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참여 신청은 음악, 무용, 퍼포먼스

남궁영기/기자

경상남도, 도민의 시각으로 소통하고 평가 '도민 정책소통단' 모집

도민의 관점에서 실질적 정책 평가 실시

경상남도는 도정 주요 정책을 도민에게 알리고 정책집행단계에서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민 정책소통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획혁신·안전건설·산업경제 등 8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되는 ‘도민 정책소통단’은 분과별 주관부서 추천 8명, 전문가 16명, 도민 76명으로 참여 인원이 모두 100명이다.

경남도는 참여 인원 중 도민 76명에 대해서 19일부터 29일까지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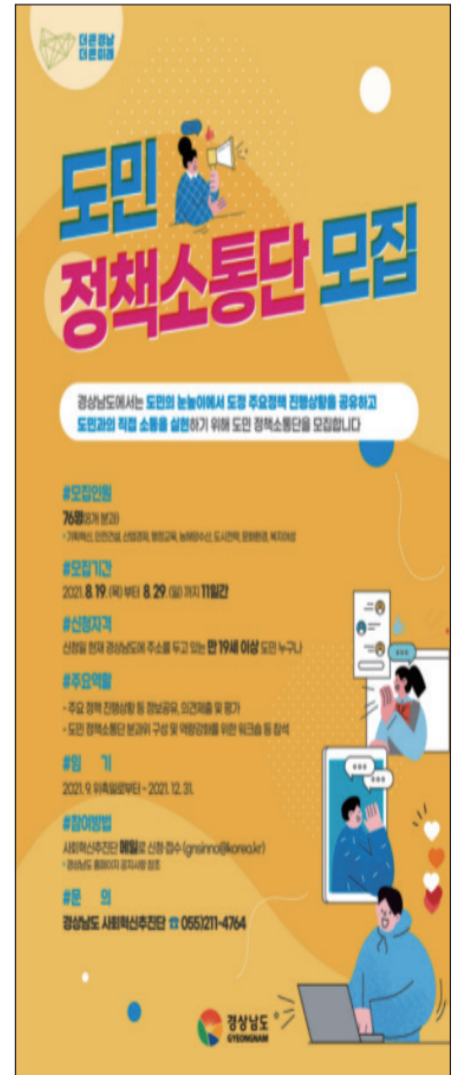
자격 요건은 도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경남도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경상도 누리집 공지사항 ‘도민 정책소통단 모집’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29일까지 사회혁신추진단 메일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신청자 가운데 권역별·연령별·성별을 감안하여 적임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도민 정책소통단’의 임기는 9월 위촉일로부터 올해 연말까지로, 분과위 구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회 참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이후 2차례 분과회의에서 소통과 제에 대한 추진계획과 진행상황 등 정보를 공유하고 각자 정책개선 의견을 제출하면 평가를 거쳐 11월 경 전체회의에서 최종 우수과제 3개를 선정함으로써 도민 정책소통단의 활동은 마무리된다.

‘도민 정책소통단’이 다루게 될 과제는 복지와 안전, 일자리 창출 등 도민의 일상에 영향이 크고 도민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업으로 8개 분과별 4개에서 6개까지 총 36개이다.

옥세진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장은 “기존의 정책평가의 행정 자체 평가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도민이 배제돼 있었다”며 “정책의 직접적 고객인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과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배경을 설명하며 “관심 있는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경상남도는 ‘도민 정책소통단’의 평가 결과를 경남도 누리집에 공개하고 도청 모든 부서는 주요 정책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확인하고 분석한 뒤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정책 환류 및 소통을 활성화하는 체계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최광용/기자

2021 경상북도 전국드론축구대회 4차산업혁명 중심 포항에서 날다

포항대학교 평보체육관에서 13일 개막식 열려

전국 드론축구 최고의 팀을 가리는 2021 경상북도 전국드론축구대회가 13일 포항시에서 개최됐다.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4차산업혁명의 중심 포항에서 날다'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이번 대회는 13일 오후 2시 포항대학교 평보체육관에서 이강덕 포항시장, 정해중 포항시의회의장, 김희수 경북도의회 부의장, 김병욱 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14, 15일에는 전국 각지의 25개 드론축구팀이 참가해 양일간 치열한 경기를 펼치는 한편 국가대표를 포함한 드론축구 명문팀들이 출전해 눈길을 끌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영일대해수욕장 부근에 대형스크린을 설치해 화려한 드론

축구경기 영상을 비대면으로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높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특히,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확진자 급증과 지난 27일 0시부터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 격상에 따라 무관중 경기 원칙하에 대회장 현장에서는 입장 인원 최대 50명 제한과 인원확인용 밴드 착용, 휴대폰 ARS 인증, 주기적 현장 방역소독 등 철저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했다.

한편, 포항시는 최근 드론 산업 성장과 대중화에 맞춰 공간정보 측량, 드론농약살포, 드론방역 등 공공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드론을 활용하고 있으며 재난상황 정찰드론 개발, 드론 산불감시 플랫폼 개발 지



원 등 민간 분야 수요창출 및 지원에 힘쓰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드론을 포항의 차세대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드론은 이미 드론축구와 같은 드

론레포트 뿐만 아니라 영상촬영, 교육, 시설물 모니터링, 드론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면서 우리 삶속에서 일상화되고 있으며, 연관 산업 역시 크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 민간용 드론시장 규모는 연평균 46.6%의 성장해 2021년에는 시장규모가 4,771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드론산업에는 저중량, 고용량의 충전시간이 빠르고 소형화된 배터리가 필수다. 드론의 비행시간과 비행능력 등 성능과 직결하는 것이 고효율의 이차전지이므로 이차전지 산업과 연계성이 높아 이차전지 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포항시는 드론산업 저변확대의 최적지라는 평이다. 포항시는 영일만산업단지 와 블루

밸리국가산업단지 에 에코프로로부터 총 1조7천억 원 규모의 양극재, 음극재 등 배터리 소재 공장 건립 투자를 유치한 데 이어 GS건설이 영일만4산단 내에 1천억 원 규모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 투자, 최근 포스코케미칼과 총 2조5천억 원 규모 배터리소재 공장 투자 유치를 받아 주요 앵커기업을 포함하여 관련 기업 11개사 총 4조5천억 원에 이르는 투자를 확보해 이차전지 제조 혁신 허브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 은 "차후 배터리 산업과 드론산업을 전후방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포함의 미래 신성장 먹거리로 만들어 지역 일자리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기현기자

대구시 동구청, 제76주년 광복절 기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운동 전개



대구 동구청은 지난 13일 제76주년 광복절 기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의 일환으로 한국자유총연맹 동구지회 회원 30여명과 함께 동서아파트, 청기와아파트, 동서시장 일대에서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쳤다.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은 국기계양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사랑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한국자유총연맹 동구지회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한국자유총연맹 동구지회는 신암동 청기와아파트 330여 세대에 태극기를 나눠주고, 동서시장 및 동서아파트 상가에 훼손된 태극기를 교체했다.

김희목 한국자유총연맹 동구지회장은 "이번 태극기 달기 운동을 통해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태극기 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과 독립정신을 계승·발전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배기철 동구청장은 "더운 날에도 불구하고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제76주년을 맞은 광복절에는 집집마다 태극기를 계양하여 지금의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도 애국심으로 뭉쳐 함께 이겨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남경영기자

안동시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에 안간힘

안동시는 지난 8월 강원도 고성군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8대 방역시설 조기설치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이번 ASF발생은 지난 5월 강원도 영월군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이후 3개월만에 고성군에서 발생한 사례로 야생멧돼지 발생과 달리 ASF바이러스의 농가유입에 더욱더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안동시는 이번 ASF발생에 따라 8월 9일(월) 오후2시에 계획되어 있던 "양돈농가 축산차량통제 및 8대 방역시설 설치 교육"을 전면 취소하고 농가모임 등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번 교육에서는 주요 발생지의 양돈농가 컨설팅 교육을 담당해왔던 전문가를 초빙하여 ASF 바이러스 유입차단을 위한 농장별 축산차량통제 조치 강화방법, 내·외부 울타리설치,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 방조·방충망, 축산폐기물보관시설과 같은 8대 방역시설 설치 필요성과 기준, 유의사항, 실제 설치사례 등에 대해 설명하고 농가별 컨설팅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안동시는 상반기에 1억8천만 원(보조 60%)을 지원하여 울타리 등 기본 방역시설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2차에 걸쳐 생식회



2,000포, 각종 소독약품 4,000kg과 방역복 900벌을 배부한 바 있다.

또한,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6천만 원(보조 50%)을 확보하여 차량통제 시설과 전실 등 중점 방역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국비 1억5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고 8대 방역시설 확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석운 축산진흥과장은 ASF 차단방역을 강조하며 "내 농장 코앞까지 바이러스가 왔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농장별 8대 방역시설 조기설치 등에 박차를 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시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장주의 방역에 대한 주인의식"이라며 개별농가의 철저한 방역의식을 강조하였다.

김세기기자

경주시, 황룡사 '중문'과 '남회랑' 증강현실로 재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적용돼 실제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입체감·현장감 느껴져

경주시와 문화재청이 황룡사 '중문'과 '남회랑'을 다시 살려냈다. 경주시는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함께 황룡사 중문과 남회랑을 증강현실(AR) 기술로 재현해 17일부터 황룡사역사문화관에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체험서비스를 실시한다.

시는 현존하지 않는 황룡사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증강현실 콘텐츠 개발을 기획했다.

증강현실로 복원된 중문과 남회랑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돼 실제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입체감과 현장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룡사 중문과 남회랑을 체험하려면 황룡사역사문화관 내 체험라운지에서 태블릿PC를 대여받아 황룡사지내 중문과 남회랑 관람 동선을 따라 이동하며 체험존에서 앱을 실행하면 된다.

앱을 통해 중문과 남회랑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으며, 증강현실을 배경으로 기념사진도 촬영할 수 있



다. 경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황룡사 9층목탑과 중금당 등을 AR컨텐츠로 개발해 문화재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황룡사는 553년(신라 진흥왕 14년)에 짓기 시작해 오랜 시간 변화를 거듭해 신라 최대의 사찰이 됐으나 1238년(고려 고종 25년) 몽골 침입으로 소실돼 지금은 황룡사지라는 이름의 터만 남아 있다.

한반식기자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경북 동촌체험휴양마을 美에 반하다

음성글로벌선진학교중학교축구부

제58회청룡기전국중학교축구대회우승!



음성군 원남면에 위치한 글로벌선진학교 중학교 축구부가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제58회 청룡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에서 우승하며 중등 축구부 최강팀의 위엄을 다시 한번 자랑했다.

부산일보사와 대한축구협회는 경남 고성군 스포츠타운, 고성종합운동장, 회화체육공원 일대에서 지난 달 25일부터 30일까지 예선 리그를 진행한 데 이어, 8월 6일까지 제58회 청룡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본선 토너먼트를 진행하였다.

충북 리그의 강자 글로벌선진중은 3일 경남의 강호 창녕FCU15를 5-1이라는 큰 점수차로 제압하고 4강에 합류하였다. 4일 열린 전남 순천FC와의 4강 경기는 팽팽한 접전으로 전반전을 0-0으로 마무리하고 후반 시작 2분만에 순천FC가 1골을 득점하였으나 후반 4분 이경우 선수가 패스한 공을 상대골 좌측에서 기다리고 있던 정해욱 선수가 받아 중거리 발리슛으로 동점을 이뤄냈고, 후반 종료 직전 이성진 선수가 올린 프리킥을 이서현 선수가 헤딩으로 연결하여 역전골에 성공하여 최종 결승에 진출하였다.

6일 열린 경북 안동중과의 결승전! 결승전 상대는 만만치 않았다. 0-0으로 전반전을 마무리하였고, 후반 15분 상대의 앞선 전역에 정찬양 선수의 송곳 같은 패스를 받은 정해욱 선수가 단독 드리블을 골로 연결시키며 우승컵에 한발짝 다가섰다. 후반 26분 양주찬 선수의 볼이 골대를 맞고 나온 것을 고아명 선수에게 정확히 연결이 되면서 추가 골을 득점하였다. 안동중의 추가

골이 있었지만 빠른 수비 전환과 탄탄한 수비력을 자랑하는 글로벌선진중의 골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최우수선수(MVP)는 대회 기간 내내 남다른 기량을 선보인 글로벌선진중 3학년 정찬양 선수가 차지했다. 총 7골을 넣어 울산학성중 이진곤 선수와 함께 득점상을 공동 수상한 정찬양 선수는 '강한 상대들을 만났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의지가 강했고 팀 전체의 단결된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우수지도자상은 글로벌선진중을 지도한 '승장' 김성일 감독에게 돌아갔다. '강팀의 상대들이라 보니 전반전에는 수비에 집중하며 상대를 충분히 탐색한 후 후반에 집중공격하였는데 그것이 잘 통했다.'라고 말하며 '코로나19와 무더위 속에 경기를 준비하는 것이 큰 어려움이었는데 우리 선수들이 흘린 땀이 잘 버티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성일 감독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기독교 대학과 다른 팀들보다 절대적 훈련량이 부족했지만 창단 4년 만에 큰 성과를 얻어 매우 만족스럽고 기쁘다'며 우승소감을 밝혔다.

글로벌선진중은 올해로 결성 4년째를 맞고 있으며, 2020 KFA 퓨처팀 남자U-15 대표선발에 도주성·신대환, 2020 KFA 골든에이지 U-14 합동광역훈련에 정찬양·심제만, 2020 KFA 골든에이지 U-14 센터훈련 연맹대표에 정찬양, 2020 KFA 골든에이지 U-13 합동광역훈련에 정민기 선수가 선발됐다.

최민식/기자

대전교육청, 대전행복이음 마을교육공동체 퀴즈 이벤트 진행

퀴즈를 통해 마을교육공동체 및 혁신교육지구 이해하기

대전광역시교육청은 8월 16일부터 8월 29일까지 2주간 마을과 학교가 협력해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대전마을교육공동체 및 소셜미디에 활성화를 위해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에 처음 실시하는 퀴즈 이벤트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마을주민 등 대전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정답자 중 100명을 추첨하여 5천원 상당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방법은 교육청, 학교 홈페이지 및 교육청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를 통해 이벤트 페이지 방문 후 정답을 체크하면 된다. 퀴즈는 총 3개 문항으로 정답에 대한 힌트는 이벤트 페이지에 있는 대전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소개를 확인하면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으며, 당첨자는 8월 31일(화) 대전교육청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벤트 진행 시 지난해 대전교육청 청렴공모전 최우수 선정작인 '청렴한 대전, 당당한 당신, 신뢰받는 대전시교육청' 청렴표어 캘리그

고정화/기자

속초시, 완전(完全)한 안전(安全) 도시 구축 노력

CCTV 통합관제 센터, 시민안전공제 등 시민이 안전한 도시 구현

속초시가 CCTV 통합관제 센터의 철저한 예방 시스템과 전 시민 대상 안심 공제를 통한 경제적 지원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사는 도시 구현을 위해 힘쓴다.

속초시는 2020년 4월 1일 속초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하여 각 부서에서 관리했던 시 전역에 설치된 방범용, 쓰레기투기단속, 산림감시, 불법주정차단속, 재난·재해 CCTV 등 474대를 한 곳에서 통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으로 CCTV 관제사 16명이 4교대로 근무하면서 CCTV를 통해 사건과 사고를 모니터링하고, 유관 기관과 업무 협조를 통해 사건, 사고의 사전 예방과 대응 조치 업무를 하여 시민들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담당한다.

관제사의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포착되면 신속하게 112상황실로 신고해 속초시민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동안 뺑소니, 화재상황 등 위험상황으로 판단되어 신고한 사례는 51건(2020년 30건, 2021년 21건)이고, 각종 사건 해결을 위해 수사기관에 약 270건(2020년 142건, 2021년 128건)의 영상자료를 제공해 사건 해결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속초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지능화되고 있는 도시환경에 맞춰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영상 수신과 동시에 사람과 차량의 움직임 등 특정 이벤트를 감지하여 관



제요원의 모니터에 실시간 띄워 위 기 상황을 신속히 선별 관제할 수 있는 지능형 영상관제시스템을 도입하였고, 방범용 카메라로만 사용되던 이전 방식과 달리 생활방범은 물론 쓰레기투기 단속과 위기상황 안전감시 등 다목적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방범용 카메라에 차량번호인식 기능을 탑재하여 작은 도로의 차량 통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유관기관 및 동 주민센터 등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위해요소가 많은 취약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사업비 557백만원을 들여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생활안심취약지역 17개소에 다목적 CCTV 신규 설치(53대) 및 기존 CCTV가 설치된 곳(30개소)의 현장시설물 정비 사업을 완료했다.

이번에 설치한 CCTV는 범죄예방을 위한 생활방범과 더불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재난상황 감시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하고자 도입했으며, 기존 방식과 달리 카메라에 차량판독 기능을 접목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CCTV는 무단투기 쓰레기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스톨 존 내 어린이 보호, 각종 범죄 예방 등 우리 생활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일부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추가 설치 요구의 목소리가 크다.

속초시는 앞으로도 우범지역 및 좁은 골목길 등 카메라가 닿지 않는 곳에도 CCTV를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범죄 사각지대의 안전망을 촘촘히 하여 사건사고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다 살기 좋은 속초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속초시는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 안전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정신적 안정과 치료, 보상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시민안전공제를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속초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고, 공제료는 시가 일괄 납부한다. 보장 항목은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을 포함한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사태, 대중교통, 강도, 익사, 스톨존 교통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사고 등으로 매년 상황 분석을 통해 항목은 변경할 예정이다.

각종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는 시민에게 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속초시 외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만 15세 미만의 경우 상병에 따라 사망 보상은 담보할 수 없다.

보장기간은 올해 10월 25일까지로 속초시는 매년 1년 단위 계약 갱신으로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안전공제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3월 24일에는 선박 사고로 사망한 시민에게 1500만원이 지급 되었다.

속초시는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관련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범죄와 사고로부터 모든 시민이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최재은/기자

정선군, 고한 야생화마을 광차체험코스 조성사업 박차



정선군은 폐광지역의 모범적인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고한을 고한리 일원에 기존 폐 운탄길을 활용한 광차

(鐵車)체험 노선을 조성한다. 광차체험 노선은 고한역(고한1리)부터 삼탄아트마인(고한15리)까지 총

3.6km 코스에 18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육교와 승·하차장, 목재데크길, 매표소 등이 조성된다.

군은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2022년 6월 착공, 2024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야생화마을 광차체험코스 조성사업은 석탄자재들을 실어나르던 광차를 재현하여 기존 탄광지역의 폐 운탄길을 활용, 자연환경 훼손은 최소화하고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려 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인근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 방문객들을 고한읍 소재지까지 유입시켜 침체된 폐광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

다.

고한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스스로 야생화 사업과 마을가꾸기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 구공탄시장~마을호텔 18번가~삼탄아트마인~정암사~만항재정사~만항마을 등과 연계한 야생화 특구로 성장, 야생화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폐 운탄길을 활용한 광차체험코스 설치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부터 정선군 전략산업과장은 폐광기금을 활용하여 투자하는 사업인 만큼 야생화마을 광차체험코스 조성사업이 폐광지역만의 특색있는 관광 특화산업으로 폐광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2021 춘천예술인 창작준비 지원사업

경제적 취약 전문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보령시, 광복절 연휴 드론 활용한 '특별 방역' 실시

보령시는 지난 16일 김동일 보령시장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전해수욕장 백사장 일원에서 드론을 활용한 방역 실시했다.

이날 시는 드론 3대를 동원해 관광객이 붐비지 않는 새벽시간을 활용해 소독을 진행했다.

이날 방역은 광복절 연휴기간 관광객 집중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시는 특별 근무조 편성 및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안내방송을 시간당 2회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독은 1일 8회 이상 추진하는 등 연휴기간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김원호/기자



춘천문화재단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예술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해 '춘천예술인 창작준비 지원사업'을 오는 8월 11일부터 9월 8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생계와 창작활동이 어려운 지역 전문예술인에게 1인 100만원, 총 150명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하며 별도 정산 없이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춘천에 주소지를 둔 만19세 이상의 전문예술인(개인) 중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합산 중위소득 120% 이내인 경우라면 가능하다. 소득 기준을 등분상 전체 가구원 수로 두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로 한정하여 해당 예술인에게 실질적 지원을 한다는 취지이다. 자세한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 안내는 춘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사업설명회는 8월 18일 오후 3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신청접수는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재단 온라인 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예술인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예술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해 경제적 취약 전문예술인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창작준비금 1인 100만원 지원
- 취약계층 지원(중위소득 80%, 별도 선정기준)
- 총 150명 지원

지원대상:
- 만19세이상 춘천거주 전문예술인
- 춘천출생 전문예술인 또는 춘천 거주 1년 이상
- 중위소득 120% 이내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연소득 합산, 최대 2인 가구 기준) 소득 합산 기준을 충족해야 함

지원내용:
- 사업비 8.25~9.8 start.cccf.or.kr
- 오차리인 8.30~9.3 춘천아트라운지 (주소: 춘천시교동1로113길 11)로 신청
- 추첨을 거쳐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 발송(신청비 부담)

신청기간: 8월 11일(수) ~ 9월 8일(수)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
문의처: 033-255-5111

을 위해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예술소통공간 1층 춘천아트라운지에서 신청접수 입력도움을 지원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사전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또한 카카오톡 채널에서 '춘천아트라운지'를 친구추가 하면 보다 쉽게 예술지원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

다.

재단은 올해 예술인복지사업으로 예술인 창작공간 임대료 지원사업, 예술작품 저작권 등록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며 지역 예술계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최재은/기자

칠곡군, 광복절 맞아 해방동이 현직 이장이 전하는 응원... “제2의 해방은 코로나 극복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1945년 태어난 '해방동' 현직 이장이 코로나 극복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겨 눈길을 끌었다.

주인공은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이장 류지후(76)씨로 '제76주년 광복절'인 15일 홍보판을 들고 파이팅을 외치며 대국민 응원에 나섰다.

칠곡군 동명면에서 6남 6녀의 다섯 번째 아들로 태어난 류 씨의 인생은 대한민국의 굴곡진 역사와 궤를 함께 했다.

6살에는 6.25전쟁이 발발해 온 가족이 피난을 가야했고 살던 집은 포격으로 피해를 입었다.

대한민국이 6.25 이후 잿더미에서 시작됐듯 류 씨도 중학교 졸업 후 부모님으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미래를 준비했다.

월남전이 한창인 1966년 입대했으나 김신조 등 무장간첩 침투사건으로 복무 기간이 6개월 연장되기도 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 새마을 운동시기에는 아버지로부터 배운 건축 기술로 새마을 사업에 참여하며 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80·90년대는 고도성장을 거듭하던 대한민국처럼 류 씨도 탄탄대로를 달리며 인생 황금기를 맞이했다.

승승장구 하던 대한민국호가 IMF를 만나 좌초됐을 때 류 씨도 조카의 빚보증을 잘 못 서면서 금싸라기 땅과 집을 모두 날리며 큰 시련과 위기를 겪게 됐다.

이후 대한민국이 IMF를 극복하고

세계 10대 경제 반열에 올랐듯 류 씨도 구슬땀을 흘리며 재기에 성공했다.

그는 재향군인회회장, 성균관유도회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회장 등 지역 사회단체 주요직위를 맡아 활발한 활동을 펼쳐 칠곡군으로 부터 '자랑스러운 군민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김세기기자

안산시 박건희 안산상록수보건소장, 道감염병관리지원단장으로



안산시 보건정책의 한 축으로 코로나19 사태에 큰 역할을 했던 박건희 안산상록수보건소장이 17일 1천300만 경기도민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총괄하는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장으로 선임됐다.

박건희 신임 단장은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한다.

2018년 2월 상록수보건소장으로 부임한 박건희 신임 단장은 3년6개월 동안 37만 상록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업무를 총괄해왔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들어 다양한 방역정책을 진두지휘하며 무난하게 보건소를 이끌어 왔다는 평가다. 신속한 검사를 위해 상록수보건소 광장, 보노마루 소극장 광장 등 시민 접근성이 편리한 장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는 한편, 무증상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종교시설, 어린이집 등 4천900여 개 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최정부기자

배기철 대구 동구청장, 행정서비스현장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대구 동구청은 지난 13일 행정서비스 운영 내실화를 위해 행정서비스현장심의위원회 위원 2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행정서비스현장이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이다.

동구 행정서비스현장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1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구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

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서비스 현장의 제·개정사항 및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들을 심의하고 운영하여 2년간의 위원직을 수행한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행정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고객만족을 위해 위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행정서비스현장이 좀 더 실효성을 갖추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남궁영기자



여수시, '제5회 여수음악제' 금난새 음악감독 특별교육

여수시는 'KBS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제5회 여수음악제' 음악감독으로 선임된 금난새의 특별교육이 14일 예울마루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여수음악제는 9월 초 해양관광휴양도시 여수에서 열리는 국내 대표적 클래식 축제다. 여수음악제의 핵심 프로그램인 '음악학교'는 여수지역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 수준 높은 음악 교육을 통해 KBS교향악단 단원들과 함께 공연할 수 있는 꿈나무를 육성하고 있다.

지난 7월 여수음악제 음악감독으로 금난새 지휘자가 선임되어 음악학교 교육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금난새 지휘자는 KBS교향악단 지휘자를 역임했고, 현재는 성남시립예술단 예술총감독 및 뉴월드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이다. 해설이 있는 클래식의 선두주자이자 한국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 또한 서울예술고등학교 교장 및 대학생 연합 오케스트라, 농어촌 희망 청소년 오케스트라 감독 등을 맡아 후



학양성에도 힘써왔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이날 현장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꿈을 키우는 학생들을 격려하면서, “여수음악제 음악학교 교육으로 선별된 것을 축하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KBS교향악단에서 음악을 배운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한 단계 더 도약해 훌륭한 음악가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KBS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제5회 여수음악제'는 9월 중 GS칼텍스 예울마루 등 여수지역에서 개최되며, KBS교향악단과 국내·외 정상급 음악인들이 여수를 찾아와 클래식 축제의 향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남출기자

에너지정책지원부, 경진대회 수상 상품권 인천 서구에 전달

인천 서구는 지난 13일 한국환경공단 환경에너지시설처 에너지정책지원부로부터 온누리상품권 50매를 전달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에너지정책지원부는 공단 내 경진대회에서 수상해 상품으로 받은 온누리상품권이 의미 있는 일에 쓰이길 바란다며 서구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서구 관계자는 “지역 내 주민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는 한국환경공단 에너지정책지원부에 감사드립니다”며 “의미있는 상품권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서구는 이날 전달받은 물품을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가정의 후원 물품으로 쓸 계획이다.

김중남기자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 양쪽 귀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전남 2021 명량대첩축제, 9월 3일부터 온라인 개최

전남도, 해전 재현 AR 체험·댓글 이벤트 등 참여 프로그램 다채

전남도는 오는 9월 3일부터 3일간 '별개의 명량! 호국의 울돌목!'이란 주제로 2021 명량대첩축제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명량대첩축제는 2008년부터 이순신 장군과 전라도민의 호국정신 선양사업의 하나로 매년 전남도와 해남군, 진도군이 공동 주최해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우려로 취소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극복 메시지를 담은 온라인 방식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 단계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운영할 방침이다.
당초에는 오프라인 프로그램 중심으로 축제를 준비했으나 지난날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을 시작으로 사회

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2021 명량대첩축제는 축제 길러 콘텐트인 명량 해전 재현을 가상현실의 AR체험으로 추진한다. 유명 인플루언서 랜선 투어, 퀴즈 열전, 울돌목 운 에어 공개방송, 라이브 커머스, 유튜브 콘테스트, 틱톡 챌린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했다.
특히 온라인 축제 대표 프로그램 명량해전 AR체험은 울돌목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휴대폰으로 명량대첩을 360도 다양한 각도에서 경험하도록 개발한 콘텐트로 누구나 손쉽게 명량해전을 체험하고 감상하도록 기획했다.
또한 매년 축제장에서 개최하던 출정식, 이순신 가무악, 조선수군 무예

대전, 청소년 명량 가요제 등은 온라인으로 개최해 호국역사문화축제로서 정체성을 구현하기로 했다.
올해 명량대첩축제는 유튜브 명량대첩축제TV를 통해 라이브로 송출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댓글 이벤트 등 다양한 참여방식으로 푸짐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영신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 나라를 구했던 이순신의 리더십과 민초들의 의지로 대한민국의 코로나 블루가 치유되는 변곡점이 됐으면 한다"며 "현장에서 함께하는 축제 대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는 온라인 명량대첩축제를 통해 다소나마 축제 분위기를 느끼고 힐링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안동시, 피아니스트 김대진, 바이올리니스트 파비올라 김 듀오 리사이틀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은 녹음이 어우러진 여름, 유려한 피아노 선율과 바이올린의 음색을 더한 아름다운 클래식을 감상할 수 있는 '피아니스트 김대진 & 바이올리니스트 파비올라 김 듀오 리사이틀'을 오는 17일 저녁 7시 30분 오후홀에서 진행한다.
예리하고 날카로운 통찰력과 감동적인 연주로 전 세계에 대한민국 음악계의 위상을 널리 알린 '건반 위의 진화론자' 피아니스트 김대진과 뉴욕타임즈가 '눈부신 화려함과 정확성을 동시에 갖춘 드문 솔로리스트'라 평가한 바이올리니스트 파비올라 김의 듀오 리사이틀은 모차르트, 드보르작, 폴 쾨플러, 프코코피에프 등 다양한 작곡가들의 마스터피스들로 구성되어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에게는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모차르트가 여류 바이올리니스트 스트리나자키와 함께 연주하기 위해 만든 서정성과 균형감으로 음악적 아름다움을 표현한 'Sonata for Piano and Violin in B-flat major, K.454', 샬바, 탕고, 틴 팬 엘라, 스키테 등 네 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각 장의 이름에 어울리는 춤곡 분위기를 리드미컬하게 감상할 수 있는 폴 쾨플러의 'Four Souvenirs for Violin and Piano', 풍부한 비트와 균형 잡힌 구성을 토대로 우아함이 두드러지는 걸작 프코코피에프의 'Sonata No.2 in D major for Violin and Piano, Op.94a'를 감상할 수 있다.
피아니스트 이진상, 김선옥, 손열음, 문지영 등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우수한 제자들을 배출하며 한국예술



종합학교 음악원 원장으로 재직 중인 피아니스트 김대진과 미국 줄리아드 예비학교와 줄리아드 학사, 석사 과정을 마치고, 콜번스쿨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현재 콜번스쿨 예비학교 교수와 미시건 음대 교수로 재직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파비올라 김의 내면에서 우리나라의 깊이있는 연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아니스트 김대진 & 바이올리니스트 파비올라 김 듀오 리사이틀'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초등학교이상 관람이 가능하며, 관람료는 전석 2만 원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또는 안동문화예술의전당 홈페이지로 확인할 수 있다.
김세기기자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서초음악문화지구 참여회원 모집

조은희 구청장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문화지구를 조속한 시일내 조성토록 적극 지원할 것"



서울 서초구는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서초음악문화지구 조성·운영을 위해 타운매니저먼트협의회 신규회원을 10월 29일까지 공개모집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초음악문화지구'(반포대로~예술의전당 일대)는 총 180여 개소의 공연장, 악기공방, 음악연습실 등이 밀집되어 있는 서초구 음악명소로, 클래식 음악문화의 특성을 인정받아 2018년 전국 최초로 음악문화지구로 지정되었다.
모집대상은 문화지구 내 문화예술업종(공연장, 악기상점 및 연습실 등) 운영자, 음악시설이 입주한 건물주, 문화거점시설, 기업인, 전문예술인(단체) 등 문화예술 관계자이며 이 밖에 지역문화 부흥에 기여하고

자 하는 주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년부터 시작한 서초구 타운매니저먼트협의회는 '민간 주도의 문화활동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지역의 의견을 제시하고 활동주체가 되어 다양한 문화사업을 발굴·실행하고 있다. 더욱이 2019년 하반기에는 서울특별시 서울형 타운매니저먼트사업 공모에도 선정되어 현재까지 시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지난 6월에 협의회 제안으로 음악문화지구의 새로운 네이밍인 서리풀악기거리를 홍보하고 문화지구에 위치한 180여 개의 문화예술 시설들을 알리기 위해 '서리풀악기

거리 문화지도' 1만부를 제작·배포했다.
향후 협의회는 10월 신규회원 모집이 완료되면 분과장 및 선임직으로 구성된 대표추진단을 선출해 보다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 9일 '타운매니저먼트'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음악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한 것을 인정받아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제1회 지역문화대상' 문화자치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음악문화지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성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유주기자

충남도, '목가구로 만나는 선비문화' 특별전 연다

도 산림자원연구소, 산림박물관서 17일부터 내년 3월까지 전시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가 오는 17일부터 내년 3월까지 충남산림박물관에서 조선시대 선비의 기교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목가구로 알아볼 수 있는 특별전 '절제와 균형의 미, 목가구로 만나는 선비문화'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학문과 사교의 공간인 사람방에서 사용됐던 목가구를 중심으로 전시하며, 목가구의 기능적·심미적 특성을 소개한다.
구체적으로는 고결한 기상, 소박한 기품의 선비문화, 단아하고 고아한 선비의 멋, 학문과 사교의 공간, 사랑방, 삶과 수양의 공간, 사랑방, 삶의 품격이 서린 목가구, 목가구에 스민 나무의 숨결을 주제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특별전에는 산림박물관이 보유한 목가구 외에도 국립무형유산원이 보유 중인 무형문화재 전통 기술 분야 전승자의 작품(13종 30점)



도 함께 전시한다.
도 산림자원연구소 산림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전통 목가구를 통해 선비문화를 이해하고 목재의 다양한 활용법을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특별전"이라며 "우리 전통 목가구의 간결하고도 깊은 멋을 느낄 수

있는 이번 특별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발열 확인,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할 계획이다.
고정화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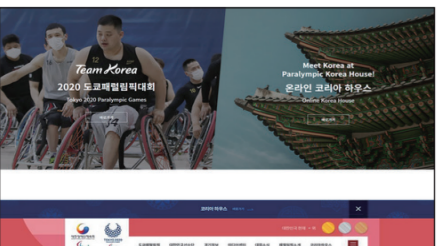
군위군, 2021 일연 삼국유사 차례제 개최

군위군은 15일 인각사에서 삼국유사를 집필한 일연선사를 추모하는 차례제를 봉행했다.
올해 입적 732주기를 맞은 일연선사 추모 차례제는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과 전통을 계승하고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선사를 추모하기 위해 매년 인각사에서 봉행되고 있다.
육법공양과 삼귀의, 종사영반으로 시작된 차례제는 은혜사 조실 중화법담 큰스님을 비롯해 인각사 호암스님, 김영만 군위군수, 심철 군위군의회 의장, 박창석 도의원과 군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참여 인원을 최소화 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행사를 진행했다.
김영만 군수는 "우리군은 일연 큰스님의 뜻과 업적을 기리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더불어 삼국유사를 적극 활용하고 대중적 접근성을 높이고자 삼국유사 테마파크 운영, 삼국유사 목판 활용사업, 삼국유사 퀴즈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삼국유사의 민족정신과 역사의식을 계승 발전시켜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군의 명예를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의암주 논개에 대한 추모제가 순국일인 14일(음력 7월 7일) 장계면 논개생가지에서 각급 기관단체장,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번 제례에서는 초현관 장영수

'온라인 코리아하우스'로 2020 도쿄패럴림픽 우리 선수단 응원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정진완)와 함께 8월 16일부터 2020 도쿄패럴림픽 '온라인 코리아하우스'를 운영한다.

이번 '온라인 코리아하우스'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현장 전시와 응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욱 많은 국내외 사람들이 한국문화를 접하고 우리 선수들을 응원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향후 패럴림픽 등 종합 국제대회 대표 누리집으로도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 코리아하우스' 누리집에서는 패럴림픽(8.24~9.5.) 경기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신속한 경기결과와 함께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 홍보, 대한민국 선수단 응원, 경품 행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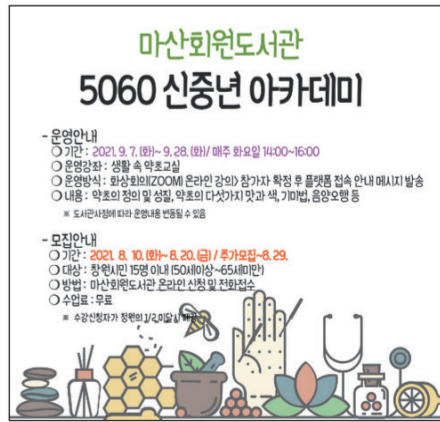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에서 직접 패럴림픽 선수단을 응원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온라인 코리아하우스'로 우리 대표선수들을 힘차게 응원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이번 도쿄패럴림픽에서 첫 정식 종목이 된 태권도를 비롯해 대한민국 문화와 체육, 관광이 더욱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전순희기자



마산회원도서관, '5060 신중년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신중년의 여가선용과 인생 제2막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맞춤형 강좌 운영

마산회원도서관은 퇴직 이후 새로운 사회로의 재진입을 위한 사회활동과 인생 설계에 도움이 되는 신중년 맞춤형 강좌인 「5060 신중년 아카데미」 수강생을 오는 29일까지 모집 중이다.
'생활 속 약초교실'이라는 주제로 오는 9월 7일부터 9월 28일까지 4강으로 매주 화요일 운영되며 약초의 정의와 성질, 다양한 약초의 이용법, 기미법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수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한 가운데 온라인 비대면 화상 프로그램인 줌(ZOOM)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김삼수 마산회원도서관장은 "퇴직 이후 새로운 사회로의 재진입을 목전



에 둔 신중년을 위한 특화강좌 운영으로 여가선용과 인생 제2막의 뜻깊은 새출발을 계획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마산회원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마산회원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광용기자

'2021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추가 접수

내달 3일까지 상반기 신청 못한 농업·어업·임업 종사자 대상



충남도는 2021년 농어민수당 지급을 위한 추가 신청 접수를 내달 3일까지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받겠다고 17일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어

촌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이다.

이번 추가 신청 접수는 2020년 1월 1일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로, 상반기 지급 신청을 못한 농업(축산업 포함), 어업, 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 부정 수급자,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동일 가구를 구성한 가구원 중 한 사람이 대표해 해야 하며, 2개 이상 겸업 가구의 경우는 한 개 업종만 선택하면 된다.

수당은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 가능한 종이나 카드,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로 11월 초순 지급할 예정이다.

정남춘 도 농림축산감장은 "농어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및 소득 양극화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농어민수당을 도입해 역점 추진 중"이라며 미 신청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5만 6586가구에 1253억 원, 올해 상반기에는 954가구가 늘어난 15만 7540가구에 630억 원의 농어민수당을 지원했다.

이번 추가 접수에 따라 지원 가구 수 및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정화기자

시흥시, 여기있다내혜택! 시흥시 '보조금24' 홍보에 집중

보조금, 찾아대니느라 힘드셨죠? 이제 찾지 말고 접속(O)하세요!

내게 맞는 정부 혜택은 보조금24에서 쉽고 편리하게

- 1 정부24 로그인 후 보조금24 클릭
- 2 서비스 이용 동의 체크 (최초 1회)
- 3 정부혜택 확인 신청

행정안전부

시흥시는 정부24 로그인 한 번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 홍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에 따르면 '보조금24'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수혜서비스를 각각의 사이트에 방문하지 않고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안내 서비스다. 인터넷,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오프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간 시민들은 각종 수혜서비스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혹은 서비스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보다 많은 국민이 공공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조금24 서비스를 마련했다.

정부24에 로그인하여 보조금24 이용 동의를 거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구나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온라인 서비스와 동일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현재 305개의 중앙부처 서비스가 안내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지자체 제공 서비스까지 포함해 약 6,000여 종의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시흥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광판, 현수막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24를 통해 편리하게 맞춤형 공공서비스 혜택을 확인할 수 있다"며 "시민들께서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특별한 온택트 채용의 장, 인천시 온라인 일자리한마당

150여개 기업 참가, 6개 테마 채용관 운영, 1,500여명 이상 참가 예상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비대면(온택트)에 온라인을 통한 온택트 방식의 아주 특별한 채용행사를 마련한다.

인천광역시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천병무지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등이 공동개최하는 '2021 온라인 인천 일자리한마당'이 8월17일부터 10월15일까지 온라인상에서 개최된다.

'2021 온라인 인천 일자리한마당' 홈페이지에서는 참가기업 채용정보를 6개의 테마(병역지원기업, 우수강소기업, 스마트제조기업, 경력직 채용기업, 신입직 채용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로 구성된 다양한 채용관을 운영하여 우수한 기업들과 보다 많은 지역인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개최한다.

또한, 구직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구인기업의 등록 및 구직신청을 통한 온라인 채용기능 이외에 보이스코칭 특강, 테라리움 만들기 등 풍성한 이벤트도 마련했으며, AI 모의면접, 이력서 컨설팅

등 부대행사도 함께 운영한다.

특히, 사전 예약을 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제물포 스마트타운(2층 대회의실)에서 오프라인 화상 및 대면 면접을 진행해 구인업체와 구직자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행사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2021 온라인 인천 일자리한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 후 입사지원서를 하거나 부대행사 및 이벤트에 참여하면 된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변화하는 채용시장 흐름에 맞춰 지역 내 기업에게는 능력 있는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취업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우수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모두가 만족하는 행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본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1 온라인 인천 일자리한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2021 온라인 인천 일자리한마당 운영사무국' 전화 또는 이메일로 하면 된다.

김종남기자

2021 온라인 인천 일자리한마당

온라인 일자리한마당
8.17(화) - 10.15(금)
참가기업: 인천 및 수도권 내 구인기업 150개사

화상 및 대면 면접
9.6(월)~9.10(금)
10:00am ~ 16:00pm
장소: JST 제물포스마트타운 2층 대강당 (제물포역 2번 출구/도보 5분)

032.225.3153

LH,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으로 임대주택 입주민 취업 지원

87개 단지 입주민 대상 1:1 맞춤형 취업컨설팅 등 상담서비스 제공

LH는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연계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LH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취업난 해소 및 각종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연계서비스'는 일자리 전문 상담기관인 '사회적 협동조합 내일로'와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일자리 전문 상담사들이 LH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해 입주민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5개월간 수도권 임대주택 40개 단지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한 결과, 입주민 430명이 취업에 성공한 바 있다.

지나해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시작했다.

올해에는 수도권 비웃 대구, 대전, 전남 등 전국 87개 단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원 기간 역시 기존 5개월에서 8개월('21년 5월~'21년 12월)로 확대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일자리 상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등과 함께 복지 안내 서비스도 병행해 다문화 가정·노인 등에게 지자체 복지서비스 등 각종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다.

올해 5월부터 찾아가는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연계서비스'를 시작해 7월 말 중간 점검 결과, 약



두 달 동안 2,160여명의 입주민을 대상으로 총 6,551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그 중 270명이 돌봄센터, 경비회사, 유치원, 한의원, 버스회사, 카페 등에 취업을 성공했다.

또한, 124명에게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35명에게 지자체 및 사회복지관 등에서 실시하는 외부 복지서비스를, 48명에게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했으며, 41명은 직업훈련기관을 통한 직업교육 등에도 참여 중이다.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연계서비스'를 이용한 입주민들은 "상담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했다. 다양한 정보를 알게 됐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나서기 시작했다"라며, LH와 일자리 전문 상담사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또한,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연계서비스'가 오랫동안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도 내비쳤다.

최광수기자

평택 포승(BIX)지구에 6,961만달러(805억원) 외국인 직접투자... 경기경제청 개청이래 단일 최대 규모



경기경제청, ESR켄달스퀘어(주)에서 단일 최대 FDI 6,961만 달러(805억 원) 도착

5,827㎡ 부지에 최근 기업의 핵심 경영 전략으로 삼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일환으로 탄소 중립과 기후 변화에 대비한 친환경 건축물을 설치해 미국 그린빌딩협의회(USGBC)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인 LEED 골드 등급을 획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주 청장은 "ESR켄달스퀘어(주) 외에도 다수의 기업이 공장 착공 및 건축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며 "경기경제청의 웰스톱 행정서비스를 통해 입주기업에 지원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다양한 지원사업 발굴과 규제개선을 통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동시에 입주기업들이 ESG경영과 RE100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는 지난해 12월 사업준공 이후 물류시설용지는 분양을 완료했다. 산업시설용지 분양가는 157만 원(3.3㎡)으로 친환경자동차와 관련된 자동차 부품, 화학, 기계, 전기, 전자, 기타운송장비 제조 등의 업종이 입주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으로 분양에 참여할 수 있다.

최정근기자

경북도, 전통시장 빈 상가에 스마트팜 도입 시도

경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연계 리빙랩 사업에 구미 금오시장 내 커뮤니티형 스마트 팜 시스템 개발 계획이 사전기획 과제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경북도는 구미에 소재한 케이알엘이디(KRLED)를 연구 주관기관으로 해 구미시, 경북교육청, 연세대, 금오공대, 시장상인회 등과 협약을 맺고 상가 공실률이 높은(25%) 구미 금오시장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했다.

이번 시장상가 공동화 문제해결을 위한 커뮤니티형 스마트 팜 시스템 개발은 지역시장 내 유휴 공간(빈 상가)에 스마트 팜 기술을 적용해 전통시장의 활성화, 새로운 형태의 도시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연구내용은 ▷노후한 전통

시장의 그린 리모델링 기법을 적용한 작물재배 최적화 환경 구축 ▷lot 플랫폼 기반 모듈형 스마트팜 시스템 개발 ▷작물재배대 및 제어시스템 구축 ▷재배작물 상용화 및 현장 적용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비즈니스모델(비즈니스모델, 셀러드바, 트레이닝센터 등) 테스트 등이다.

경북도는 이번 연구에 대해 사전 기획과제 수행을 거쳐 2024년까지 본 과제수행을 완료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스마트팜을 활용한 기술을 지역 전통시장에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생연계 리빙랩은 민·관·산·학·연 협력 시장의 활성화, 새로운 형태의 도시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평택 포승(BIX)지구 개청 후 단일 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6,961만 달러(한화 805억 원)의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도착했다고 16일 밝혔다. 투자주체는 글로벌 벤처 물류기업인 ESR켄달스퀘어(주)로 투자는 지난 달 28일 이뤄졌다. ESR켄달스퀘어(주)는 지난해 11월 국내 최대 규모의 친환경 물류센터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같은해 12월 718만 달러(한화 83억 원)를 투자했다. ESR켄달스퀘어(주)는 2023년까지 총 1억 달러(한화 1,236억 원)를 투자할 예정이다. ESR켄달스퀘어(주)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 16만

